

코스피	+23.36	2,891.35
코스닥	-6.13	852.42
환율 (원/달러)	-5.10	1,379.70

휘발유(원/리터)	1709.59	▲ (+0.43)
경유(원/리터)	1543.88	▲ (+0.44)
LPG(원/리터)	982.08	▼ (-0.22)
(전국 평균)		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
WTI(달러, 10월)	82.52	▲ (+0.42)

TSMC·인텔 ‘시훈풍’ 타는데...삼성전자 ‘노조 역풍’

TSMC ‘압도적 1위’ 파운드리 시장 주도...시총 1조달러 규모 성장 인텔 ‘정부 지원’ 제조 기술력 확보 총력...삼성전자 추격에 ‘속도’ 삼성 ‘묻지마 파업’ 몸살...전삼노 비상식적 행보에 여론도 ‘싸늘’

525조원 vs 9909억달러(약 1370조 원).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10일 종가 기준 시총액이다. TSMC 몸값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급성장해 삼성전자와 비슷해졌다. 4년여가 지나 이제 2배가 넘는 격차가 나고 있다.

TSMC,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특수’ 등을 엮고 질주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나홀로 ‘노조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간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흔들리는 모양새다. 메모리에서는 이익을 내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성장 분야에서는 경쟁사를 추격하는 입장이 상황이 긴박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1조2661억5400만달러(약 53조7736억원)로 집계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만 놓고 보면 매출이 2078억6900만달러(약 8조8000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9% 뛰었다.

애플, 엔비디아 등 빅테크들을 확실한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엔비디아 최첨단 칩의 경우 TSMC가 사실상 전량 생산하고 있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장 역시 엔비디아에 이어 TSMC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TSMC 기자총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장중 1조달러를 터치했다. 인텔의 행보도 발 빠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에 최대 195억달러(약 26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에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인텔은 해당 자금을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주의 설비 건설·확충에 쓸 계획이다.

TSMC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는 노조가 없다. 공장이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상황은 전혀 다르다. TSMC와 인텔이 무서운 속도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파운드리에서는 1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HBM쪽은 아직 수주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장을 교체하는 ‘승부수’까지 띄운 와중에 삼성전자가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전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가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내걸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전삼노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삼성 근로자들의 무기한 파업은 글로벌 테크에 위기’라는 제목을 달았다. 다른 외신들도 반도체 부문 파업 여파에 주목하고 있어 글로벌 고객사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론은 이미 전삼노에 등을 돌린 상태다. 이들이 지난달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해 ‘호화 파티’를 연 것이 분기점으로 꼽힌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尹, 나토 75주년 행사 참석...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확대 할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 참석해 발코니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나토 관련 행사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기 지원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민준

금리인하 압박이 커졌다...시장 “10월 유력”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에는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커진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가장 기간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

한은, 기준금리 연 3.50% 최장 동결 금통위원 2명 “3개월 내 인하 ↑” 이 총재 “가계대출 등 신중 검토”

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연 3.5% 유지가 적절하다고 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에 많은 진전은 있었으나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금통위원 의견을 보면 3개월 내 10월에도 금리 동결이 유력해진다.

이에 이 총재는 “포워드 가이드는 ‘조건부’지 안바꾼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의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를 전제로 한다. 8월과 9월 데이터에 따라 포워드 가이드는 또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이 총재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물가가 안정됐다. 물가안정을 본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탄소중립 중점학교 중단

교육부 “시·도 교육청 사업 이양” 환경단체 “환경교육 후퇴” 반발

교육부가 환경교육 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교육 후퇴’가 빛을 보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중앙부처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온 것이 고 이후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했다는 입장이지만, 중앙부처에서 환경교육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사업이 중단됐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부처가 협력해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학교에서의 친환경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학교 단위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관계부처와 운영을 한 것”이라며 “우수한 모델이 지역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도 단위 사업으로 이양돼서 17개 시·도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단계의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도에서는 시·도 재원을 통해 (이전의) 탄소중립 중점학교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교들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시·도 교육청으로 사업으로 이전하고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도 교육청이 17개나 되는 만큼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토·일요일 신문 쉽다 www.ekn.kr 주말엔 온라인뉴스로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넘어 신약물질 개발 세계1위 목표”

〈위탁생산〉

‘BIX 2024’ 첫 참가, 신약후보물질 플랫폼 디벨로픽 3.0 공개 이종항체 플랫폼 에스듀얼 등 신약개발 초기부터 위탁 장점 CMO 생산1위 넘어 고부가가치 CDO 톱티어 도약비전 제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CMO) 1위를 넘어 위탁개발(CDO) 글로벌 톱티어로 올라서겠다는 경영 포부를 내비쳤다.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종합 컨벤션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4(BIX 2024)’의 컨퍼런스 세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개발한 최신 CDO 기술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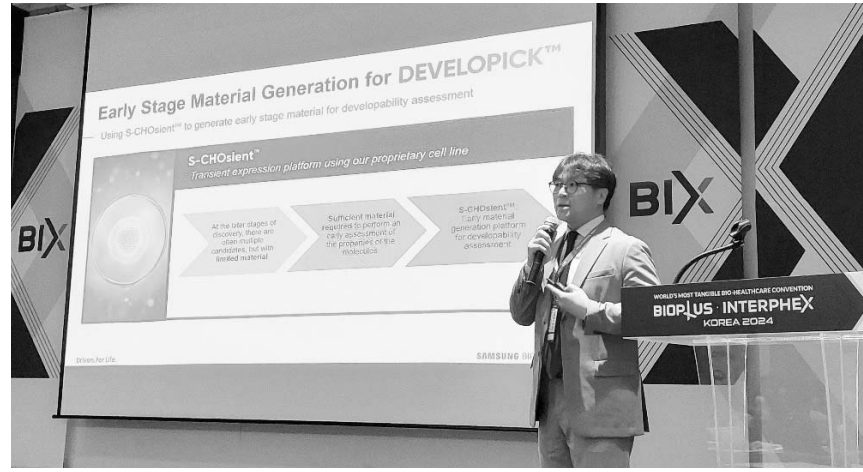
한국바이오협회 주최, 리드엑시비전 스킴코리아(RX코리아) 주관의 국내 BIX에 처음 참가한 자리에서 세계 1위의 단 순생산 지위에 머물지 않고 고부가가치 사업인 신약 개발 위상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임현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형개발그룹장은 ‘디벨로픽

3.0: 개발가능성 평가도구를 활용한 성공적인 후보물질 선정 및 신약개발’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자체개발한 신약 후보물질 평가 플랫폼 ‘디벨로픽’의 최신버전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열리는 종합 바이오산업 행사에 처음 참가해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컨퍼런스에도 참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소개된 ‘디벨로픽3.0’은 지난 2022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 개발한 디벨로픽의 최신버전으로 발급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고객사로 하여금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후보물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품목허가 및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줄여주는 서비스다.



임현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형개발그룹장이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4(BIX 2024)’ 컨퍼런스에서 ‘디벨로픽3.0’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 후보물질의 세분화를 개발해 주는 ‘에스초이스’, 이종항체 치료제 개발 플랫폼 ‘에스듀얼’, 후보물질 개발지원 플랫폼 ‘에스글린’ 등 총 6개 CDO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CDO 플랫폼을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생산능력(캐파) 기준 세계 1위 CDMO 기업으로 올라선 이래 제5~8공장이 들어

서는 인천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조성 등 규모 면에서는 이미 ‘초격차’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생산 시설은 이미 제조공정이 규격화돼 있는 2세대 바이오의약품인 ‘항체의약품’(병원균·바이러스 등 항원에 결합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항체를 기반으로 하는 표적치료제)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4(BIX 2024)’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시부스 모습.

여러 고객사로부터 다양한 품목의 항체의약품에 의뢰받아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기존 생산설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각 제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 사실상 제조업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CDO 사업 확대는 신약개발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CDO 고객을 이후 CMO 고객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임현창 그룹장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O 사업을 시작한 이후 글로벌 톱10 제약사를 포함해 누적 총 116건의 CDO 계약을 수주했다”며 “고객사 후보물질의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기민하면서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해 향후 대규모 CDO 사업 수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국부 유출 M&A 결사 반대”

아시아나 노조 ‘집단 사직’ 불사 막판 뒤엎기 총력



11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2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행동에 나선 모습.

“조원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인수·합병(M&A), 정부는 한 편인가! 슬롯 반납·국부 유출·거짓 매가 캐리어, 대한항공은 무릎 꿇고 사과하라!”

11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한예택 APU 수석 부위원장은 “두 항공사의 합병은 독과점으로 인한 요금 인상·서비스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운수권 반납에 따른 노선 축소·폐지 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며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공 산업 경쟁력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APU 위원장은 “우리는 M&A와 관련해 직원들의 고용·처우 등을 논의하고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을 통해 대한항공 노사 협력팀에 올해 2월과 3월, 5월 총 3회에 걸쳐 의사를 문서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항공 경영진은 답변을 하기는 커녕 완전 무시로 일관하고 있고, 공식 문서를 접수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항공 측은 “어느 부서가 APU의 입장을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전제했다.

최 위원장은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는 올해 중으로 회사에 인도돼야 할 A350 여객기 2대를 대한항공에 사전 이관해 연간 수습여원의 영입이 이익을 포기하고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배임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아울러 “주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관여했다는 점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유류연합 집행위원회(EC)에 조사를 의뢰하고 배임 고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에는 국가·국민 이익에 반하는 M&A를 주도한 산업은행의 오류를 바로잡아 아시아나항공이 제3자에 매각되도록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화물분부는 에어인천으로의 매각이 결정됐다. 이에 보잉 747·767 조종사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타 기종 조종사들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 위원장은 A350 기장이지만 조종사노조의 대표자로서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최 위원장은 “조건부 사직이 이뤄질 경우 EC가 요구하는 매각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대한항공 주도의 아시아나항공 M&A는 무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수정 아시아나항공 노조 위원장은 “통합 없이는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하다”며 “2020년 선언과 달리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는 급속히 호전되고 있고, 직원들이 합심해 부채 비율도 상당히 줄어 왔다”며 “부실의 근본 원인이 그룹 오너 리스크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 연결 재무제표상 부채는 12조 7739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를 감당할만한 제3의 인수 후보 기업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중론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시프트업 ‘대어급 IPO’ 이름 무색... 엔씨 제치기엔 역부족



‘대어급 기업공개(IPO)’라는 평이 무색하다. 시프트업의 상장 첫날 주가 상승률이 10%대에 그쳤다. 한때 시가총액 규모가 엔씨소프트를 넘어섰으나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하고 추진력을 상실했다. 상반기 공모주들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크지 않아 고평가·오버행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첫선을 보인 시프트업 주가는 공모가(6만원) 대비 18.33% 오른 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시프트업의 시가총액 규모는 4조 1198억원이 됐다.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게임 주가군에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가 상승 마감에 일선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반기 최대어 중 하나로 꼽혔던 종목치고는 아쉬운 결과다. 특히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이사가 과거 몸담

았던 엔씨소프트(시가 4조 1976억원) 주가에 실패한 것도 실망스럽다. 장 초반 시프트업 주가는 40%대까지 상승해 게임주 2위 넷마블(5조 2689억원)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었지만, 갈수록 상승폭이 줄어들어 엔씨소프트에게마저 자리를 내주게 됐다.

향후 주가 전망도 불투명하다. 시프트업이 벌써 성장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나와서다. 이날 상승 마감했지만, 올 상반기 신규 상장이 이뤄진 29개사가 상장일 평균 주가 124% 상승률을 기록한 데 비하면 낮은 수치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시프트업은 이미 IPO 단계부터 고평가 의혹을 안고 있었다. 1~2개 주력 지

식재산권(IP)에 작년 연매출은 1686억원에 불과한데, 공모가 산정 시 제시한 비교 기업 3사가 일본의 공동 기업들이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권리행사가 시작되는 스톡옵션 138만 6000주도 불안요소로 지적된다. 물량 대부분의 행사가 200원이며, 나머지 수량도 1200원~2000원 수준이다. 시프트업의 전체 공모 물량이 725만주다. 공모 물량의 20%에 달하는 저가의 스톡옵션이 출회 대기 중이라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악질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IPO 단계부터 ‘대추행’이라고 말하기에는 머쓱한 상황이었다. 시프트업은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과 정에서 225.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희망밴드 상단에 공모가가 정해졌다. 통상 흥행 시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거나 근접해 희망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상반기 29개 상장사 중 희망밴드를 상단을 초과한 곳이 27개사였다.

이에 올 하반기 이후 IPO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프트업의 흥행이 IPO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두자 오히려 공모주 투자 과열 우려가 떠오른 것이다. 이미 이노그리드 등 하반기 신규 상장사들의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상반기 신규 상장사 29개 중 약 20곳은 이미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올 2분기 IPO도 1분기에 비해 기관·일반청약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는 숨고르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도 상반기보다는 ‘육색 가리기’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韓·日·美·中도 원전 하는데”...호주, 반대 정책 깨고 수용할까

호주 제1야당, 2050년까지 7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공약 제시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달성 대안 주목... 40년 금지정책 변화 관심

호주 제1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2050년까지 7개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중요성과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수급, 탄소중립 달성의 대안으로 원전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자 호주도 40년 가까이 된 금지정책을 깨고 원전을 수용할까 관심이 쏠린다.

호주 야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 에너지 분야 대변인인 테드 오 브라이언은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배출 없는 원전과 가스 등의 발전기술을 균형있게 갖춰야만 호주는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에 도달하는 동시에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러 “현재 호주는 분기점에 있는데

넷제로를 위해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따라 2050년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는 원전 도입 여부가 내년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호주는 석탄 등 화석 연료 발전이 전체 전력 공급의 약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탄소 감축을 추진하면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거나 가동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발전량은 이를 쫓아가지 못 해 전기 요금이 급등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야당은 탄소 발생 없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원자력 발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호주는 전 세계 우리나라 매장량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매장 국가지



미국의 한 원자력 발전소 AP=연합뉴스

만 1998년 ‘원전 모라토리엄(금지정책)’ 정책을 도입하며 원전을 금지하고 있다.

원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호주 국민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호주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영국은 1952년부터 호주에서 핵실험을 해왔고 프랑스 역시 1966년부터 남태평양 지역에 핵실험을 진행한 것이 전국적 반원전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에 2011년 당시 여론조사에서 원전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 비중이 60%를 넘었지만 지난 4월 진행된 또다른 여론

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원전을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 일본, 미국과 중국을 언급하면서 호주의 원전 도입 가능성은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하며 호주는 원전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 계획도 없는 선진국 중 하나인데 이러한 선진국 비중 또한 감소추이라고 짚었다.

다만 자유·국민연합이 내년에 정권을 재탈환하더라도 원전 건설이 첫 삽을 뜨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원전 건설을 위한 새 정책이 도입되면 이를 금지하는 기존 정책들의 폐지, 지역사회 반발 극복, 건설 비용 반영, 생태계 새로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명문대 중 하나인 에디스코완대학교의 아스마지즈 박사는 “최소 2040년까지는 원전을 보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확실한 비용에 안전 또한 이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전 근처에 거주하고 싶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메모리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AI 입힌 '갤럭시 링' 가볍고 편안...수면 중에도 건강상태 체크

현장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언팩 행사

혁신 웨어러블 '링', 무게 3그램 채 안돼...수심 100m까지 방수 최상급 트림 '워치 울트라', 대형 스크린으로 건강상태 확인

"갤럭시 인공지능(AI) 경험이 웨어러블, 그리고 갤럭시에코 제품으로 확장돼 고객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일 삼성전자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기자실에서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제품은 새로운 품격적인 '갤럭시 링'이었다.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착용한 모습.

<관련기사 9면>

현장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초소형 폼팩터에 담긴 혁신 웨어러블, 새로운 개인체인저인 갤럭시링은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얇고 가볍고 정교하게 디자인이 됐다"며 "7mm의 너비, 두께는 2.6mm, 무게는 3g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수심 100m까지 방수가 가능해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걱정 없이 링을 착용하고 다닐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착용 전 손가락 두께에 맞는 제품을 골랐다. 직접 체온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매 전 9개의 목업(Mock-up) 중 두어개를 손가락에 끼고 구매했던 제품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실제 착용을 해보니 부담 없는 무게감이었다. 마감 재질이 외부는 티타늄, 내

부는 에폭시로 돼있어 고급스러움과 깔끔함이 돋보였다.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질문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3개월 간 사용해보는 제품을 보여주며 그와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충전은 전용 투명 케이스를 통해 가능해졌고, 차량 내 엠비엔트 라이트처럼 얇고 은은한 한 줄의 불빛이 들어왔다.

링을 긴 상태로 손가락을 튕겨보니 갤럭시 스마트폰의 알람 끄기와 카메라 컨트롤도 할 수 있었다.

이 제품은 헬스케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링을 찬 상태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에너지 점수를 제공하고,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의 수면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운동



삼성전자 갤럭시 링

건강 상태를 과거와 비교해 변화된 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며 "더 개인화된 맞춤형 갤럭시 AI 기반의 헬스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했다.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최상급 트림인 울트라 제품도 볼 수 있었다. 강렬한 주황색이 시그니처 색상이다.

애플 워치 울트라를 의식한 듯 대형 스크린을 장착했음에도 불편한 수준의 무게가 아니었고 썩한 색감의 디스플레이도 특기할만한 점이였다.

바깥 프레임은 애플 워치와 같이 사각형이었지만 정작 내부 프레임은 원형으로 돼있었다. 사각 프레임으로 설계하면 더욱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점은 아쉬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많

은 고민을 거쳤던 부분이고,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원형의 갤럭시 워치 아이덴티티 기반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고, 거친 외부 환경에서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도록 '쿠션'이라는 새로운 조형을 도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내 사이클링 문화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맞춰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에 4분 가량 라이딩을 했을 경우 사이클링 파워 확인 기능을 탑재했다.

또 본인의 수면 호흡 증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둘 연사를 막아주고, 최종 당화 산물 지수를 확인토록 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넷마블 주식 팔아 2500억 실탄 확보 CJ ENM, 본격 반등 나선다

CJ라이브시티 손실 방어... 웨이브 합병 위한 추가 매각 가능성도

CJ ENM이 비핵심자산인 넷마블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대규모 현금 확보에 성공했다. 그간 추진했던 사업 중단과 인수합병(M&A)이 대거 중단된 상황에서 실탄 확보가 절실했던 만큼 이번 지분 매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진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익개선이 기대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CJ ENM 사옥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ENM은 보유중인 넷마블 주식 429만7674주를 총 2501억2462만6800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9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비사업 투자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주식 매도 시 주가가 저가 계약 당시보다 높으면 차익을 주가 상승에 따라 기업이 가져가는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준 가격은 넷마블의 10일 종가인 5만8200원이다. 이에 따라 CJ ENM의 처분 후 소유 주식 수는 1442만2326주(16.78%)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CJ ENM의 넷마블 주식 매도는 CJ라이브시티 청산과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5월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맺고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일산 동구 장항동 일원에 K팝 전문 아레나(CJ라이브시티)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체 상급에 대한 이견 등이 있었고, 경기도는 결국 지난 1월 K-컬처밸리 조성 사업협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CJ라이브시티의 청산 시 손실규모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지난 1일 8만63000원에 마감했던 CJ ENM 주가

는 2일부터 3거래일 연속 급락하며 4일에는 6만9100원으로 20%가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넷마블 주식 매각으로 현찰을 확보하면서 우려는 잠재운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현재 주가는 장중 7만8400원까지 오르는 등 빠르게 회복중이다. 신용DB금융투자 연구원은 "라이브시티 사태 이후 약 2500억원의 토지를 제외하고, 손실 처리가 예상되는 규모는 약 3000억원인 점을 고려 시 당장 현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라이브시티 청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넷마블 지분 일부 처분으로 상쇄될 예정"이라며 "다시 영업실적 개선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CJ ENM은 자사의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인 티빙(TVING)과 SK스퀘어의 웨이브(Wavve)와 합병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라이브시티에 투입될 현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신은정 연구원은 "이번 처분한 5%가 규모가 예상보다 작지만 비핵심 자산 유동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추가적인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라이브시티, 티빙 등 추가적인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비핵심 자산 유동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나라살림 적자 74.4조원...역대 두 번째 규모

1~5월 누계 작년보다 22조 늘어 총수입 258조 2천억으로 1조 6억 ↑

지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법인세 감소 및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에 따라 74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한 액수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던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였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누계 총수

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151조로 작년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과 소득세(3000억원)는 늘었지만 법인세(15조

3000억원)가 큰 폭으로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

던 지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작년 같은 달(5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원 확대됐다. 지난달(64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 8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1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미디어 그룹

복지TV

복지 TV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송출되는 사회복지 전문방송입니다

장애인신문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와 권리행사,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계 전문지입니다

웰페어뉴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며, 심도 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http://www.welfarenews.net/

skylife 188
KTolleh 219
SKBtv 504
LG 173

금융위, 금융사 10곳 ‘정상화 계획’ 승인

부실정리 계획, FSB 등 국제기준에 부합...내부직원 대응지침 보완 지시

금융당국이 신한·KB·하나·우리·NH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0개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전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인 10개 금융사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바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작성한 지구계획이다.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서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됐다.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

하면 해당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하는 구조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서 제시했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과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계획도 최종 승인했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정리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위기시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컨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서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나유라 기자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시 제재 안해...1호사는?

당국, 금융사에 내부통제 관리 적극 도입, 운용토록 유도
‘책무구조도’ 내년 1월까지 제출
10월까지 제출시 제재 면제
관리의무 미이행·광범위 위법행위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금융시장 신뢰 저하 등 8가지 기준 따라
당국 직접 책임규명 절차 개시



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초까지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상당수의 금융지주사, 은행은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지만,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

범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 시정 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신분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 임원 등의 상당한 주의 여부를 고려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운영지침으로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당국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사태, 장기간 횡령

등 검사사례를 분석해 8가지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8가지 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 묵인, 조장, 방치 등 △범위 또는 조직적, 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체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 질서 훼손 등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시 운영지침에 따라 위법행위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개 세부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고려한 후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 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인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진옥동 “고객 중심 사고로 디지털 혁신”

〈신한금융그룹 회장〉

하반기 경영 포럼...진 회장 “성과 정의로워야” 과정의 정당성 강조



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전 임직원들에게 과정의 정당성, 고객 중심의 사고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이루자고 주문했다. 진옥동 회장은 이승건 토스 대표를 초청해 디지털 혁신에 대한 토스의 철학을 정취하기도 했다.

11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 200여명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하반기 경영포럼의 주제를 ‘디지털 혁신’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오전 세션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끊임 없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업권의 냉정한 현실을 살펴보고, 각 그룹사별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전략에 대해 발표 및 질의응답했다. 특히 이번 경영포럼에서는 이승건 대표가 연사로 나서 ‘토스의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공 방정식’을 주제로 특강했다.

경영포럼의 연사로 경쟁사 CEO를 초청하는 것은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본받고 배우자는 지론을 가진 진옥동 회장이 이승

건 대표에게 특강을 제안해 성사됐다. 이 대표는 토스의 기만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및 혁신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며 토스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파트너십의 사례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도출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 경영진과 부서장들은 지난달부터 사전 조별 모임을 통해 심도 있는 스터디를 진행해 왔다.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업권의 디지털 전략 및 트렌드 분석, 전략적 활용 및 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그룹 차원의 협업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진옥동 회장은 총평에서 “신한금융의 디지털 혁신은 고객중심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며, “결국 우리의 성과는 고객에 이롭고 사회에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에 임할 때 법규와 업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과정의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회장은 “혁신 선도기업들의 모습에서 받은 자극을 바탕으로 신한 DNA를 다시 일깨우고, 불변의 법칙인 ‘고객중심’을 통해 일류신인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삼성생명, ‘어닝서프라이즈’...손보, ‘빅5’→‘3강’ 지각변동

〈2분기〉

보험사, 2분기 호실적 성적표
삼성생명 순이익 5914억원
전년 대비 121% 상승 ‘눈길’
한화생명 순이익 전년비 23%↑
“4·5월 건강보험 여전히 우수
2분기 신계약 CSM도 양호할 것”
기존 ‘빅5’서 ‘3강 체제’로 변화
2분기 실적에 관심 집중



건강보험 신계약의 호조에 상반기 보험사들의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2분기 성적표를 앞둔 보험사들이 이번에도 일제히 호실적을 보일 것이라 예상 나온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대형사 위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종전 ‘빅5’ 체제였던 손해보험업권은 ‘3강 체제’로의 지각변동이 나타날 수 있어 주목된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2분기 연결 지배 순이익은 59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 상승이 예상된다.

전년 동기에 발생했던 처분손실의 기저효과로 투자손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배 순이익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관측이다. 2분기 보험손익은 4073억원으로 전년 대비로는 52% 상승하고 전년과 비교해 6% 하락할 전망이다.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일시적 비용이 있었던 전분기보다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투자손익은 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하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36% 증가한 4914억원으로 관측된다.

우리카드, ‘제4인행’ 참여...KCD와 맞손

〈한국신용데이터〉

우리카드가 우리은행과 함께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한국 신용데이터는 우리카드가 KCD 컨소시엄에 투자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우리은행이 KCD 인터넷뱅크 컨소시엄에 참여를 밝힌 이후 우리금융그룹 계열로서는 두 번째 참여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KCD는 우리은행, 우리카드를 우근으로 확보해 제4 인터넷은행 설립에 한 발짝 다가갔다.

김동호 KCD 대표이사는 “우리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카드와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KCD 컨소시엄은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이 적당한 평가를 받고 적



우리카드

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CD뱅크 컨소시엄을 이끄는 KCD는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

리 서비스 ‘캐시노트’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캐시노트는 신용카드 매출 관리 서비스로 시작해 경영관리, 금융서비스, 물품구매, 커뮤니티 등 소상공인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KCD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능력을 KCD뱅크 컨소시엄의 큰 경쟁력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KCD가 설립한 한국 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바탕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마진도 관리돼 CMS 배수도 상승한다. 이에 따라 커버리지 회사의 2분기 신계약 CSM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기존 톱5(삼성·DB·메리츠·현대·KB) 체제에서 3강체제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2분기 실적에 시선이 모인다. 지난 1분기 순이익은 삼성화재 7020억원, DB손보 5834억원, 메리츠화재 4909억원, 현대해상 4773억원, KB손보 292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순익 편차는 크지 않지만 지난해 연간 순익에서 메리츠화재가 1조 5784억원을 기록해 업계 3위로 올라섰다. 삼성화재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창사 이래 첫 2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1조원을 밑도는 수준을 기록하며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박 연구원은 “5월까지의 신계약 지표는 DB손해보험이 가장 우수하다”며 “4개사 모두 1분기 평균 대비로는 월초 신계약금액이 감소하는데 DB가 낙폭이 가장 적다. 뿐만 아니라 질병 1호종수 대비 담보에 대해 자사 요율 적용해 보험료 인상, 판매도 원활한데 보험료도 높여져 CSM 배수도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대해상은 매출보다는 마진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며 보장성 인보험 CSM 배수 13배가량으로 1분기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냉동김밥’이 쏘아올린 사조대림...투자주의 지정에 ‘흔들’

해외에서 냉동김밥 열풍이 불면서 사조대림 주가가 1년 만에 250% 폭등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판단에 목표가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했다고 판단해 사조대림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후 기관과 외인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냉동김밥 흥행에 1년 새 주가 250% 폭등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조대림은 전 거래일 대비 2.98% 내린 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소폭 하락 마감했으나 지난 1년 간 주가 상승폭은 200%를 훌쩍 넘어섰다. 사조대림 주가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2만5000원선에서 거래됐으나 1년 만에

249.9% 폭등했다. 연초와 비교해도 170.8%가 뛰었다.

사조대림은 미국 등 해외에서 냉동김밥이 인기를 얻으면서 냉동김밥 수혜주로 분류된 이후 주가가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 지난 8일에는 하나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사조대림의 목표주가를 현 주가의 두 배인 16만원으로 제시하면서 다음 날 상한가로 직행했다. 같은 날 장중에는 주가가 10만9900원까지 오르며 1996년 상장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사조대림은 최근 미국 최대 한인마트에 냉동김밥 3종을 수출하고 있다. 초도 물량 입점 후 추가 발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미국 현지 한인마트를 비롯한 현지 로컬 마켓으로 공급 채널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냉동김밥 흥행에 힘입어 사조대림의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946억원, 4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

해외 열풍에 주가 1년만 250% 폭등...증권가 목표가 상향 한국거래소, 주가 과도하게 올랐다면 ‘투자주의종목’ 지정 기관·외인 순매도 나서며 주가 하락...향후 주가 향방 이목

비 각각 17.3%, 31.7% 증가했다. 에프엔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예상 매출은 2조5591억원, 영업이익은 191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각각 전년 대비 24%, 49.1% 증가한 수준이다.

◇투자주의 지정에 외인·기관 ‘팔자’ 전환

승승장구하던 사조대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건 지난 10일부터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9일 장 마감 이후 사조대림에 대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10일(1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공

시했다. 사조대림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데는 지난 9일 종가가 1년 전 증가보다 2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되면 추후 주가 흐름에 따라 투자경고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경고종목이 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지난 10일과 이날 2거래일 간 사조대림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했다. 지난 10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8.84%가 빠졌는데 외인과 기관이 각각 2336억원, 663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날도 기관이

순매도(696억원) 행렬을 이어가면서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8% 하락했다.

연속 하락세에 장중 10만원을 돌파했던 주가는 8만원 후반대로 떨어지는 등 주가 향방이 안갯속 양상에 빠졌지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외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개인은 890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주가 상승에 베풀하면서 저점 매수에 나선 것이다.

◇계열사 확대 등 성장성 기대 여전... ‘아직 저평가’ 전망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전망하는 데는 사조대림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사조대림은 지난해 11월 사조CPK(舊 인그리디언 코리아) 지분 100%를 3400억원에 인수했다. 사조CPK는 전분당 제조 및 판매 업체로 대체당 수요 증가에 따

른 이익 상승이 전망된다.

지난달에는 식자재 및 위탁 급식 운영 업체인 푸디스트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푸디스트는 한화호텔앤리조트에서 지난 2020년 독립한 업체로 오프라인 채널 ‘식자재왕마트’를 운영 중이다. 사조CPK와 푸디스트 인수에 따른 성장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두 기업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은 올 하반기와 내년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조대림은 올 1분기 실적 및 사업설명회 자료를 통해 신규 계열사 추가로 사조그룹의 올해 전체 예상매출액을 6조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삼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계열사 추가를 통해 외형 확장은 물론 원가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강화된 펀더멘탈 대비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기자 giryeong@ekn.kr

투비소프트, 3수 끝에 무상감자 통과 ‘주주 희생’ 통한 회사 살리기 비판도

자본잠식 해결 vs 주주 희생 논란 일부선 감자의안결의금지 가치분 향후 판결에 따라 결정 반복 가능

투비소프트가 임시주주총회에서 10대 1 무상감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회사는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지만, 주주 희생을 통한 회사 살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투비소프트는 1주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방식의 감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수는 기존 9290만5003주에서 929만500주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 기준일은 7월 25일이며, 8월 21일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감자 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미 고은경 외 8명의 주주가 ‘감자의안결의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판결에 따라 이번 임시주총에서 통과한 감자 안건이 폐기될 수 있다.

투비소프트는 감자에 이어 16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계획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신제품 개발 및 연구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감자는 투비소프트의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것이다. 회사는 2022년과 2024년 초에도 감자를 추진했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우주항공주가 뜬다...“내년 실적 성장세”

증권가, 한화에어로 등 주목

국내 우주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대형 우주항공사가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부터는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그동안 낮아졌던 눈높이를 다시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전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월 11일부터 전날까지 각각 9.65%, 22.14% 상승했다. 이는 우주항공산업과 방산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항공우주는 6월 11일부터 전날까지 3.69%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도주로 ‘우주항공주’를 꼽고 있

는 첫 번째 감자 시도는 2022년 5월에 있었다. 당시 회사는 10대 1 무상감자를 추진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감자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 세력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번째 감자 시도는 2024년 초에 있었다. 회사는 다시 한 번 10대 1 무상감자를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회사는 경영권 소송 등의 이슈로 인해 감자 계획을 철회했다.

투비소프트의 감자 시도에 대한 주주들의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3월에도 주주들이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5대 1 무상감자 결정을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투비소프트의 자본금 감소가 결손 보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주주들은 이번 감자 결정이 올해 초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감자를 통해 발생한 감자차익을 결손금 보전에 활용해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주들의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한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800억원이 넘는데 시가총액은 200억 원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다. 지난 5월 27일 우주청이 개청하면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원 수준 확대와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약 32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 위성 발사와 지상국 및 단말국까지 포함한 위성통신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코스피 2890선...장중 연고점 경신 코스피가 11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2890대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36포인트(0.81%) 오른 2891.35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77포인트(0.72%) 오른 2888.76으로 출발해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했다. 장중 2896.43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6.13포인트(0.71%) 내린 852.42로 장을 마쳤다.

신성이엔지 ‘동상이몽’...증권사 “지속 성장” vs 신평사 “열위한 구조”

신성이엔지에 대한 신용평가사와 증권사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신평사는 신성이엔지의 전방산업자 관련 구조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반면, 증권사는 단기적인 수주 기대감에 주목했다.

지난 10일 한기평은 신성이엔지의 본평가를 진행한 결과, ‘BB-/안정적’으로 공시했다. 이는 투기등급이다. B B등급은 최소한의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돼 있을 때 부여한다.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 9일 다올투자증권은 ‘화창한 인프라 사이클’, 키움증권은 3일 ‘기대되는 하반기 수주 모멘텀’ 등 일 ‘기대되는 하반기 수주 모멘텀’ 등 제목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큰 틀에서 볼 때 증권사와 신평사 전망은 거의 일치한다. 주력 사업 부문인 클린환경사업 부문은 성장에 예상되고, 재생에너지 부문은 장기 불황 중인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업황을 고려, 회복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양 측의 차이는 접근 방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평사는 신성이엔지의 열위한 전방교섭력을 지적했다. 교섭력이란 가격 협상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회사가 어려울 경우 상대에게 어려움을 전가할 수 있는지 등을

신평사, 신성이엔지 구조적 문제 지적 한기평 투기등급 ‘BB-/안정적’ 평가 증권사에선 수주 기대감 위주로 접근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평택공장 효과”

함축시킨 용어다.

신성이엔지는 클린환경 부문과 재생에너지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 사업부문은 클린환경 부문이다. 지난 1분기 기준 매출의 93.54% 이상이 클린환경 부문에서 발생했다. 클린환경 부문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제조공간에 공기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설치 및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드라이룸, 하이브리드제습기 등의 설치 공사를 주로 영위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은 국내 주요 산업으로 대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대기업과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업종별 업황 변동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공기청정 장비나 제습기 등은 공장 증설이 진행되어 매출이 발생한다.

지난해와 올해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탓에 반도체 신·증설 투자가 지연됐다. 반면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

되며 그간 지연됐던 투자가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수익률 제고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하현수 한기평 연구원은 “업계 전반의 높은 경쟁강도 및 낮은 교섭력으로 큰 폭의 영업현금창출력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성장 기대감을 반영 중이다. 주로 수주 기대감을 언급하고 있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평택4공장 의 지연되었던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삼성전자 평택5공장 프로젝트, SK하이닉스의 용인클러스터, 마이크로 관련 투자, OLED 공장 관련 투자, 2차전지 관련 투자 등이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삼성전자, 테일러, SK하이닉스 등 지난 2년간 미뤄진 인프라 투자 싸이클이 진행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양 측의

예상은 상이하다. 다올투자증권과 키움증권 그리고 유안타증권 모두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키움증권의 경우 2026년 영업이익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반면 신평사는 신성이엔지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진 않는 모습이다. 하연규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 시장변동과 주요 업체들의 자본적 지출(Capex) 집행 계획에 따른 구조적인 수주 및 실적변동성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신성이엔지의 매출액 추이를 보더라도 풍당풍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짝수해에는 매출액이 늘고, 홀수해에는 매출이 줄었다. 홀수해에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매출이 연 및 기저효과다. 그리고 홀수해를 뒤집으면 짝수해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홀수해에 이연된 매출이 실현되고 이연에 따른 기저효과가 짝수해에 성장 요인으로 작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평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증권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신평사와 증권사 리포트를 모두 활용한다면 회사의 실체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기평 기자 partner@ekn.kr

한화큐셀, 美 콜로라도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착공



한화큐셀이 지난 2021년 완공한 미국 텍사스주 168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미국에서 총 규모 257메가와트(MW)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최근까지 개발 작업을 수행해온 한화큐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전력 수요처인 플레이트 리버 전력청(PPA)과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에 돌입했다. 한화큐셀은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콜로라도주 웰드 카운티에서 축구장 790개 크기에 맞먹는 약 1400에이커(약 5.6km²) 규모의 부지에 54만 개 이상의 모듈을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 및 건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PPA와 맺은 전력 공급계약(PPA)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연달아 대형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EPC를 수행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5월 5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과 200메가와트시(MWh)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이뤄진 프로젝트의 건설을 완료했다. 이 발전소는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 사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설비 RE100 활용 수단으로 추진”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코리나호텔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 설비를 RE100(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활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설비는 가뜰스나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RE100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일 서울코리나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국전력·에너지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 구매(PPA)·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올해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위해 개최됐다.

이원희 기자

지역난방공, 입찰 규정 변경...업계 “특혜 의혹” 반발

비파괴검사용역 입찰공고 두 달 전, 돌연 참여자격 조건 변경 OECD회원국 기관으로부터 자격 획득해야 입찰공고 참여 가능 “해외자격 정기적으로 취득 불가능...몇년 걸릴지도 모르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시설 결함 점검하는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불과 두달여 앞두고 업체 참여 자격 조건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관련 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새로운 자격을 획득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예고도 없이 자격 조건을 바꾸면서, 새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업체에게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비파괴검사 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7일 ‘비파괴검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자 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에 충족한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즉 OECD 회원국 기관의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해야 지역난방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다. 만약 OECD 회원국 기관이 아닌 러시아 등에서 자격을 획득했다면 올해부터 열리는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비파괴검사용역사업 입찰공고는 이르면 오는 12일에 나올 예정인데, 입찰공고 두 달 전 예고도 없이 참여자격 기준을 바꿔버린 것이다.

한 비파괴검사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 입찰의 특성상 특정한 시기에 집중 공고되는데, 해외자격은 정기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준비기간이 많이 드는 자격 조건을 유예기간 및 사전 공지 없이 바꾸는 건 부당하다.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열수송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파괴검사 업체 중 약 80%는 OECD 회원국 외에서 획득한 자격으로 입찰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파괴검사 업체 상당수가 불만을 품고 있지만 지역난방공사와 다른 업무에도 연관이 있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불만을 크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자격 심사는 정기적

으로 열리는 게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이 신청해야 열려 언제 새로운 자격을 취득할지 알 수 없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OECD 회원국 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업체들은 이렇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비파괴검사 업계에 따르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나라가 5개 정도밖에 없고 ISO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기술적

으로 나라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나라에서 자격을 얻더라도 ISO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 체코, 러시아 등 몇 나라 있지 않다. 그중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러시아다. 각 업체 사정에 따라 나라를 정해서 자격을 취득했던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참여자격을 바꾼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다 보니 지역난방공사가 OECD 회원국에만 참여자격을 둔 것을 두고 정부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 제재를 핑계로 OECD 회원국 중 하나로부터 관련 자격을 이미 취득한 일부 업체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같은 관련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입찰 참여조건을 바꾼 이유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주당 “동해 석유 시추개발, 지진 위험성 대비해야”

임미애 의원 “국가 이익 사업도 위험에 대해 철저한 설명과 대책 필요” “네덜란드, 지진 급증해 유럽 최대 규모 자국내 가스전 시추 영구 중단” 김광희 교수 “시추 전 유발 지진 가능성 상정하고 모든 과정 모니터링”

올해 말 정부의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지진 발생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개발 지진 위험은 없다’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말 석유 시추 개발 계획만을 밝힐 뿐, 과거 포항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었던 포항 시민들의 걱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불안을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이재민들은 무려 1435일간 구호소 내 텐트 생

활을 해야 했다. 이들에 대한 보상 역시 아직도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시추를 통한 석유 개발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이로 인해 포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불안은 명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국내 가스전 시추를 영구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호르닝언 가스기 막대한 부를 가져다줄지라도 주민의 안녕과는 결코 맞바꾸지 않았다. 결론 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북부 호르닝언 가스전에서 1986년부터 지진이 급증했으며, 이는 가스추출로 인한 지층 내 압력 변화가 원인이 된 유발 지진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역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겨우 지진의 상



11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흔을 회복한 포항 시민들을 또다시 지진의 공포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해저 지질조사를 강화하고 지진 위험성 평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석유의 경제성에 따라 지진 발생 횟수는 유의미한 패턴이 발견된다”며 “석유 개발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고 이에 따

른 ‘유발 지진’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석유 가스 시추개발 이후 인근 지역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 러시아 등 전 지구에 걸쳐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상당히 많은 사례가 비전통 석유개발, 기존 방법처럼 땅속에 있던 석유를 단순히 꺼내 올리는 게

아니라 화학적·압력·수압파쇄 등 기술을 동원한 시추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개발은 국민의 생명이며 재산이 확실하다면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촉발·유발 지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하다”며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 심해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경험한 포항의 촉발·유발 지진과 피해, 후속 조치를 복기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시추 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에 대한 정밀 감시와 개발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 기관과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 감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오종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항상처럼 이야기하는 석유 시추는 매장량이나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대통령이 성급하게 매장 추정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 발표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커졌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is@ekn.kr

英대법 “탄소중립 저해, 석유개발 중단” 판결...韓, 영향은?

법원, 서레이 카운티의 석유개발 계획 허가 위법소송 낸 주민 손 들어줘 한국, 탄소중립법과 가스전 개발계획 충돌 가능성...“환경 vs 에너지 안보”

포항 가스전 개발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영국 대법원이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석유개발 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기관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으며 지켜세웠다. 우리나라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영국의 판결이 충분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대법원은 서레이 카운티 의회의 개트워 공항 인근 유전의 석유생산 확대를 위한 허가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간 6개월의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이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를 촉발시킨다며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한다며 의회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민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석유개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생산된 석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온실가스 배출범위인 스코프1과 2뿐만 아니라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까지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데 의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지리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을 시 여차피 다른 곳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 판매상의 방어 논리는 한 마약 판매상이 체포되더라도 여차피 다른 판매상이 팔 것이기 때문에 체포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곳의 석유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논리를 부정했다. 판결에 대해 영국 그린피스는 “법원이 마침내 정부가 시추 허가를 내릴 때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은 영국의 기후공약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



예전 한국석유공사의 시추선 두성호에서 시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두성호는 매각되고 현재는 없다.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법률전문 책임자인 파트리샤카메리드브레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환경적 비용이 고려되도록 했다”며 “비록 이 결정은 영국에만 적용되지만 전 세계의 다른 법원에서 주의를 깊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판결은 우리나라 포항 가스전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 총 140억배럴의 자원량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시추는 연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며 경제적 효과 및 에너지안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가스전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릴 것이라며 개발 백지화를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제압으로 이어질 와중에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 폭탄일지 모를 가스전을 퍼 올려서 태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탄소중립 달성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병호 기자 chybh@ekn.kr

한파 닥친 카짐... '글로벌 공략'으로 반등 나선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실적 부진
내수 위주 매출 구조 약점
해외 비중 확대 '비온드 코리아'
전략 아래 신작 대거 출격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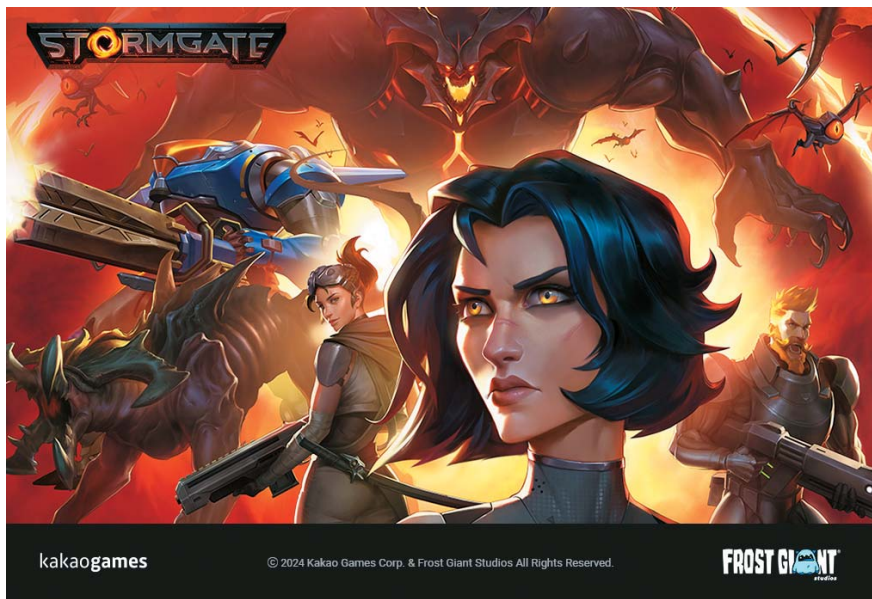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하반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비온드 코리아'라는 사업 전략 아래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해외 론칭하며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올 하반기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RTS) 신작 '스토름게이트'를 시작으로 '가디언오더', '발할라 서바이벌', '패스 오브 엑자일2' 등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오는 31일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스토름게이트의 앞서 해보기(얼리 액세스)를 전개한다.

스토름게이트는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와의 첫 협업 신작이다. 전통적인 RTS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크루세이더 퀘스트' 개발팀이 모인 픽셀트라이브의 신작 가디언오더도 출격 대기 중이다. 지스타 2021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이 게임은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연계 공격 및 협동기를 발동하는 등 수동



카카오게임즈가 하반기 신작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사진은 신작 RTS 게임 '스토름게이트'

조작을 통한 강렬한 액션이 특징이다.

라이언하트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로그라이크 캐주얼 모바일 신작 발할라 서바이벌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 게임은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지식재산권(IP)과 다크판타지 콘셉트의 핵앤슬래시 로그라이크 장르를 합해 준비 중이다.

핵앤슬래시 장르의 PC 온라인 개발 신작 패스 오브 엑자일2도 선보인다. 패스 오브 엑자일2는 전자 패스 오브 엑자일의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했고 핵앤슬래시 본연의 재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신작을 앞세운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공략은 비온드 코리아 전략의

일환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2년 2월 경영 최대 과제로써 비온드 코리아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이 비전의 핵심은 해외 시장 공략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적 부진이 카카오게임즈가 해외 공략에 속도를 낸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6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수치다. 회사는 작년에

2022년과 비교해 21% 줄어든 영업이익을 올린 가운데 올 1분기도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선 카카오게임즈의 매출 구조가 내수 시장에 집중된 점을 실적 한파의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국내 경기 위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사업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호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게임즈는 국내 퍼블리싱에 기반한 만큼 터어라운드 쉽다"며 "신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게임사들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게임 등이 국내 시장을 잠점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게임 업체가 내수 시장에만 의지해선 안정적인 실적을 내기 힘들다"며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며 매출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도 글로벌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신작 RTS 게임 스토름게이트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뤄나갈 계획"이라며 "다각화된 플랫폼, 장르 신작으로 글로벌 게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내 기업 10개 중 6개 올 2분기 시총 ↓"

CXO연구소, 2700여개 주식종목 시가총액 변동 조사...1조 클럽 늘어
SK하이닉스, 133→172조원으로 급등...LG엔솔, 92→76조원으로 감소

2700개가 넘는 국내 주식종목 10개 중 6개로 올 2분기(3월 말 대비 지난달 말) 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한 주식종목은 270개를 넘어섰다.

한국CXO연구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3월 말 대비 6월 말 기준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변동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주식종목은 우선주를 제외한 2702개다. 올해 3월 말(29일)과 지난달 말(28일) 증가 기준 시총과 순위 등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2700여 주식종목 중 올 3월 말 대비 지난달 말 기준 시총이 감소한 곳은 61%(1647개)였다. 시총이 증가한 곳은 34.7%(938개)에 그쳤다. 117개(4.3%)는 신규 상장되거나 시총에 변동이 없었다. 올 2분기에 시총 하락으로 울상을 지은 곳 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지난달 말 기준 2700여개 기업의 시총 규모는 2621조원 수준이다. 3월 말 파악된 2599조원과 비교하면 멩치가 22조원 정도 커졌다.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한 곳은 되려 늘었다. 지난 3월 말 263개에서 지난달 말에는 273개로 10개가 들어왔다. 올 2분기에 시총 외형이 1조원 넘게 증가한 종목은 35개로 파악됐다. SK하이닉스가 133조2244억원에서 172조1725억원으로 급등한 게 대표적이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 49조2868억원에서 61조7777억원으로 급등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92조4300억원에서 76조4010억원으로 16조290억원 이상 시총이 감소했다.

최근 3개월 새 시총 TOP 100 순위도 요동쳤다. 6개 주식 종목은 지난 3월 말에는 시총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

했는데, 지난달 말 상위 100개 명단에 신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식품은 지난 3월 말에는 시총 순위 180위였는데, 지난달에는 75위로 3개월 새 100계단 이상 전진했다.

같은 기간 LS일렉트릭도 115위에서 58위로 점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30위에서 80위로 순위가 앞당겨졌고, LS는 104위에서 85위로 순위가 올랐다.

올 2분기 시총 상위 TOP 20 판세도 요동쳤다. 상위 20개 중 3월 말 대비 6월 말에 시총 순위 변동이 없는 곳은 5개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삼성전자(1위) SK하이닉스(2위) LG에너지솔루션(3위) 기아(6위) 셀트리온(7위)이 포함됐다.

6월 말 기준 시총 상위 TOP 10 중에서는 'KB금융'이 지난 3월 말 13위에서 6월 말에 8위로 5계단 전진하며 시총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네이비도 11위에서 10위로 시총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삼성SDI는 3월 말 시총 9위에서 6월 말에는 14위로 후퇴했고, LG화학도 10위에서 13위로 시총 TOP 10 명단에서 탈락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2분기 국내 시총 외형은 1분기 때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대장주의 선전에 기인한 것일 뿐 오히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상승보다 하락한 곳이 많아 주식 시장은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식품·자동차·전자전 기 업종 등에서 시총이 증가한 종목이 많아 미소를 지었지만 2차전지를 비롯해 석유화학·IT·유통 업종 중에서는 시총 하락으로 울상을 지은 곳이 많아 대조적이었다"고 말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배터리업계, 정부 지원 업고 '폐배터리' 시장 나선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부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하면서 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은 배터리 탈거(脫去) 전 성능 평가 도입, 제재·제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 검사와 사후검사 의무화, 재생 원료 인준제, 배터리 전(全)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등 신설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탈거 전 성능평가의 의무화'다.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 사용이 끝났을 때 성능 평가를 통해 잔존 성능이 높다고 진단될 경우 신차에 재사용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

'폐배터리 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탈거 전 성능평가 의무화 등 조치
"미래 혁신산업 자리매김 할 것"

비하다"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시장이다. 환경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다.

배터리 재활용은 제사용이 불가능한 폐배터리를 분해하고 용해해서 배터리에 쓰이는 원재료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즉 다 쓴 배터리를 통해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핵심 광물 등 원자재가 없는 국가의 경우 필수적인 기술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를 2030년 12조 원, 2050년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배터리 3사는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코발트 생산 업체 화유코발트와 리사이클링 합작법인을 통해 폐배



LG에너지솔루션 셀투팩 배터리

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을 추출할 계획이다.

또 최근 폐배터리를 제사용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미국 텍사스에 50MWh 규모로 폐배터리를 제사용한 ESS 시스템을 마련해 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SDI는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영역 확장에 나섰다. 삼성SDI는 성일하이텍의 지분 8.79%를 보유하고 있다.

이 SK온은 지난해 독일 화학 업체 바스프(BASF)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발표했다. 양사는 양극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배터리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완성차 업체도 폐배터리 시장 경쟁에 참전하고 있다. 현대차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거나 유기금속을 추출하는 '폐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글로벌이 폐배터리를 회수하면 현대모비스가 제사용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이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 예산 등 관련 지원도 요청한다"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 혁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우 기자 lcu@ekn.kr

포르쉐, 하이드로와 저탄소 알루미늄 공급 맞손

재생 에너지 통해 원자재 생산
온실가스 배출 기존 대비 75% ↓

포르쉐 AG는 지난해 협약서(LOI)를 체결한 노르웨이 알루미늄 제조회사 노르스크 하이드로와 저탄소 알루미늄 공급을 구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포르쉐 AG는 1kg 당 4kg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애 발자국을 가진 저탄소 알루미늄을 스포츠카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드로의 원자재 생산에는 재생 에너지가 사용된다.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재생 가능한 전기 에너지로 노르웨이에



포르쉐 AG 조달 부문 이사회 멤버 바바라 프렌켈과 노르스크 하이드로 회장 겸 CEO 에이빈드 칼레비 및 양사 프로젝트팀이 공급계약 체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채굴부터 원자재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

미하는 탄소 발자국이 기존 1차 알루미늄 생산 평균 대비 약 75% 낮은 수준이다. 두 기업은 총 배출량 감축과 가정부터 상업, 산업, 기관 시설에 이르기까지 사용 후 폐기된 스크랩의 2차 활용 증대도 목표로 한다.

하이드로는 2027~2028년까지 재활용 비율이 최소 75% 이상인 저탄소 알루미늄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쉐와 하이드로는 재활

용 소재 비율이 더 높은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도 테스트 중이다.

바바라 프렌켈 포르쉐 AG 조달 부문 이사회 멤버는 "하이드로와의 협업은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탄소화를 향한 포르쉐에게 중요한 이정표"라며 "하이드로의 투명한 공급망은 책임 있는 조달 방식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에이빈드 칼레비 노르스크 하이드로 회장 겸 CEO는 "포르쉐와 같은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과의 협력은 알루미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를 지지해 준다"며 "포르쉐와 하이드로는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와 자원 선순환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우 기자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구매 36.2% 구독 이용"

정기 방문 가전 케어·무상수리 보증·낮은 초기 비용 등 장점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 10명 중 3명 이상이 구독 방식을 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6월 1개월 간 LG 베스트샵에서 판매된 LG전자 주요 제품의 구독 비중은 36.2%에 달한다. 총 23종의 구독 가능한 제품 중 구독이 대부분인 정수기, 최근 구독 제품으로 추가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시스템과 클로이 로봇을 제외한 20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LG전자는 제품(HW) 중심 사업에 구독, 콘텐츠, 서비스 등 무형(Non-HW)의 영역을 결합하는 사업 모델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의 지난해 연간 구독 매출은 1조1341억 원으로, 대형 가전 구독을 본격화한 지 2년 만에 '유니콘 사업'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동기보다 성장세가 더욱 빨라져 연말에는 연간 최대 구독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은 케어 매니저의 정기 방문을 통해 청소·성능 점검·필터 등 소모품 교체까지 제품을 빈틈없이 관리 받을 수 있고, 가전 구독 기간 내내 무상수리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차별화된 장점이다.

초기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프리미엄 가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최근 1인 가구와 젊은 층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가 각광받는 소비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LG전자 구독 가전 중 여름철을 맞아 특히 에어컨 구독 성장세가 가파르다. 구독 고객 대부분이 차별화된 편리함으로 인기 있는 AI 에어컨을 택한 것도 눈에



LG전자 구독 가전 제품 라인업

띄는 특징이다.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의 'AI 스마트 케어' 기능은 고객이 따로 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도 AI가 공간을 분석해 최적의 쾌적함을 선사한다. 쾌속 바람으로 실내 공간을 희망 온도까지 빠르게 낮춘 뒤 고객에게 직접 닿지 않는 쾌적한 바람으로 온도를 유지한다. 공기질이 나쁠 때는 알아서 공기청정으로 동작한다.

LG전자는 생활 가전에 이어 지난해 10월 TV도 구독을 처음 시작했다. 올레드 TV 외에 스탠바이미·QNED TV 등도 구독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며 휴먼터테 인먼트 제품들도 구독사업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고 있다.

LG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구독 경제 트렌드에 발맞춰 가전 구독을 해외 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LG전자의 혁신적인 가전을 편리하게 경험하도록 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말에 아시아에 처음 정수기 구독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인 'LG 렌트업'을 선보인 바 있다.

백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첫 AI 접는 폰’ 가장 얇고 가벼워...최고 성능 ‘관심 집중’

〈갤럭시 Z 폴드6·플립6〉

‘스냅드래곤 83세대 모바일 플랫폼’ 탑재로 AI·그래픽 등 성능 상향 음성 스크립트 변환·PDF 텍스트 번역·듀얼 대화 모드 등 AI 기능 제공 ‘자동 줌’ 플렉스캠·나이트그래피 등 다양한 카메라 경험도 제공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개최해 폴더블 폼팩터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을 공개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직선형의 견고한 마무리로 더 날렵해진 디자인과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무게는 뛰어난 휴대성을 제공한다.

외부 충격을 보다 분산시킬 수 있도록 듀얼 레일 힌지 구조와 설계가 한 단계 더 진화돼 내구성을 확보했다. 메인 화면의 재질을 강화해 화면 주름도 개선됐다.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에는 켈컴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3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탑재됐다. 이 칩셋은 고성능 CPU·GPU·NPU를 결합해 AI 프로세싱을 최적화하며 그래픽 등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됐다.

갤럭시 AI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의 생산성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삼성 노트’ 앱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해 정리해 주고, 자동으로 서식을 변환해 주는 ‘노트 어시스트’는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환’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삼성 노트’ 앱에서 바로 음성을 스크립트로 변환할 수 있고, 스크립트를 번역·요약 할 수도 있다.

‘노트 어시스트’에는 ‘PDF 오버레이 번역’ 기능도 추가돼 최적화된 생산성을

제공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PDF 문서 내 텍스트가 문서 형식의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번역된다.

‘삼성 키보드’에는 간단한 키워드만으로도 메일 본문이나 SNS 게시글의 문구를 작성해 주는 ‘글쓰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의 갤럭시 AI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보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통역’ 기능은 폴더블의 듀얼 스크린을 활용하는 새로운 ‘대화 모드’를 통해 보다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사용자와 상대방은 실시간으로 번역된 텍스트를 메인 스크린과 커버 스크린으로 각각 동시에 확인하며 대화 할 수 있다. 외국어 강의 등을 듣는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듣기 모드’를 사용하면 번역된 텍스트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기된다.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은 기본 ‘전화’ 앱을 넘어 다양한 메시지 앱과 연동된다. 카카오톡·라인·구글 미트·왓츠앱·텔레그램 등 다양한 앱에서 사용이 가능해져 더욱 제한 없는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갤럭시 Z 폴드6는 아이코닉한 폼팩터를 활용해 다양한 카메라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약 86.1mm(3.4형)의 커버 스크린 ‘플렉스 윈도우’는 ‘답장 추천’ 기능을 통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이 프랑스 파리 갤럭시 언팩 2024에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을 들여보이고 있다.

최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 맞춤형 답장을 제안한다.

갤럭시 Z 플립6는 신규 50MP 광각, 12MP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또한 새로운 광각카메라는 ‘나이트그래피’와 동영상 HDR로 어두운 밤 등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플렉스캠’은 같은 위치에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 인물 사진을 촬영할 경우 인물이 잘리거나 너무 작게 나오지 않도록 자동으로 줌을 조정해 최적의 사진 구도와 촬영을 지원한다.

갤럭시 Z 플립6는 4000mAh로 용량이 더 커진 배터리를 채용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배터리 사용성을 높였다.

갤럭시 Z 폴드6는 AI를 통해 S펜 경험을 새롭게 확장했다. 갤러리에서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열고 강아지 눈 위에 스펀

으로 선글라스 모양을 그리면 ‘스케치 변환’ 기능이 실제 같은 선글라스 이미지를 생성해준다.

강력한 칩셋과 방열 시스템을 최적화해주는 1.6배 더 커진 ‘베이퍼 챔버’는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성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 외에도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는 △녹스 볼트 △보안·개인 정보 보호 △대시 보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패스키 △보안 와이파이 △스크린 셰어의 라이카 렌즈 등 삼성전자의 광범위한 보안·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지원한다.

7세대의 OS 업그레이드와 7년의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 사용자가 오랫동안 최적의 경험을 즐기고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24일부터 갤럭시 Z 폴드6·Z 플립6를 전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 새 갤럭시 폴더블 공개

갤럭시 Z 플립6

- 외부 화면 플렉스 윈도우 (Flex window) 3.4인치
- 실시간 통역 등 다양한 AI 기능 탑재
- 듀얼 레일 힌지 채용 외부 충격 분산
- 펼친 화면 재질 강화 화면 주름 없어짐

갤럭시 AI 기능을 다각도의 스크린 활용이 가능한 접히는 폼팩터에 맞춰 구성

출시가격	256GB: 148만5,000원 / 512GB: 164만3,400원
디스플레이	메인: 170.3mm FHD+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2,640 x 1,080) 커버: 86.1mm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 (720 x 748)
무게	187g
카메라	후면 듀얼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F2.2) / 1,200만 화소 광각(F1.8), 듀얼 픽셀 AF 전면 카메라: 1,000만 화소(F2.2)
메모리	메모리 12GB + 스토리지 256GB / 512GB
배터리	4,000mAh

갤럭시 Z 폴드6

- 듀얼 레일 힌지 채용 외부 충격 분산
- 기존 폴드 시리즈 중 최소 무게(239g)
- 펼친 화면 재질 강화 화면 주름 없어짐
- 실시간 통역 등 다양한 AI 기능 탑재

출시가격	256GB: 222만9,700원 / 512GB: 238만8,100원 / 1TB: 270만4,900원
디스플레이	메인: 192.1mm QXGA+ 다이내믹 AMOLED 2X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2,160 x 1,856) * S펜 지원 커버: 157.3mm HD+ 다이내믹 AMOLED 2X 디스플레이 (2,376 x 968)
무게	239g
카메라	후면 트리플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F2.2) / 5,000만 화소 광각(F1.8), 듀얼 픽셀 AF / 1,000만 화소 망원(F2.4) 전면 카메라: 400만 화소(F1.8) 커버 카메라: 1,000만 화소(F2.2)
메모리	메모리 12GB + 스토리지 256GB / 512GB / 1TB
배터리	4,400mAh

버즈로 외국어도 척척...갤럭시 버즈3 시리즈 선배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개최해 폴더블 폼팩터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갤럭시 버즈3 시리즈’를 공개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갤럭시 버즈3 시리즈는 새로운 실시간 음성 통역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버즈3 프로’와 ‘갤럭시 버즈3’ 2종으로 출시된다.

사용자가 외국어 수업을 듣는 경우 갤럭시 버즈3 시리즈를 갤럭시 Z 폴드6나 갤럭시 Z 플립6과 연결한 후 통역 앱

의 ‘듣기 모드’ 기능을 켜면 사용자의 언어로 실시간 음성 통역을 들을 수 있다.

음성 명령 ‘보이스 커맨드’ 기능도 탑재됐다. 사용자가 ‘음악 재생’이나 ‘전화 수신’ 등 단어만 말하면 갤럭시 버즈3 시리즈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별도의 동작 없이 편리하게 음악을 재생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소음 제어 최적화·대화 감지·사이렌 감지 기능도 갖춰 주변 소음을 AI로 지속 분석하고 자

동으로 조절해 최적화된 청취 환경을 제공한다. 머신 러닝 모델을 통해 통화 중 발화자의 목소리를 다양한 소음 환경에서 복구하고, ‘슈퍼 와이드 밴드 콜’ 기능으로 고품질의 통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기능은 갤럭시 Z 폴드6·갤럭시 Z 플립6과 연결돼 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의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도록 데이터 분석과 착용감 시뮬레이션을 통

해 세심하게 설계됐다. 갤럭시 버즈3 프로는 커널형, 갤럭시 버즈3는 오픈형 디자인으로 각기 다른 디자인을 채택해 사용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24일부터 버즈3 시리즈를 국내 포함, 전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는 실버와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버즈3 프로 가격은 31만9000원, 갤럭시 버즈3는 21만9000원이다. 공식 사전 판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진행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할 일이 태산인데... 문서세단은 어느 세월에? 걱정마! 3초면 끝!

자동급지세단기 AutoMax™ 550C

펠로우즈 AutoMax™ 자동급지세단기 3초 만에 550장을 손쉽게 세단하세요!

펠로우즈 AutoMax™ 550C 자동급지세단기는 일일이 나누어 투입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최대 550장까지 세단합니다. 열고, 넣고, 누르면 끝! 문서 세단에 필요한 시간은 3초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세단기 앞에 서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 자동급지 기능으로 시간 절약
- 스마트락시스템으로 보안성 강화
- 젯가드 시스템으로 종이 걸림 최소화
- 자동슬립 모드로 에너지 절약
- CD/신용카드 세단가능
- 1~2장은 수동세단으로 간단히

공식쇼핑몰에서 세단기 구매하고 혜택 받자!

- 혜택 1 | 배송비 무료, 반품 배송비도 무료
- 혜택 2 | 이벤트 기간 내 구매하면 적립금이 2배!
- 혜택 3 | 세단기 전용 오일, 폐지함 비닐백 증정 (350C, 550C 모델에 한함)
- 혜택 4 | 스마트폰 링 홀더 증정 (한정수량, 소진 시 마감)

*자세한 사항은 쇼핑몰에서 확인해주세요 (mail.fellowes.co.kr)

(주)펠로우즈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63 헤인빌딩 4층 / Tel.02-3462-2884 / Email. webmaster@fellowes.co.kr / www.fellowes.co.kr

‘국내 퇴출’ 인보사, 명예회복 반전 드라마 쓴다

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치료제 TG-C 임상3상 투약완료
“미국서 1천명 환자 대상 대규모 무류임상 성공적 진행”
‘세포기원 착오’ 허가 취소·팬데믹 약재 불규 개발 성과

코오롱그룹이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 제이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해 온 ‘TG-C’ (옛명칭 인보사)가 18년만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라는 최종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0일 (현지시간)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TG-C’의 미국 무류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미국 FDA의 임상 허가를 받아 1상에 착수한지 18년만에 이룬 성과로 앞으로 2년간의 추적관찰과 품목허가라는 최종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1999년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2006년 TG-C의 미국 임상 1상에 착수한 후 2010년 2상, 2014년 3상에 진입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임상 3상 진행과정 중 세포의 기원에 관한 착오를 발견해 자발적으로 FDA에 보고했으나 같은 해 5

월 임상보류 결정을 받았고 동시에 국내 라이선스를 가진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코오롱티슈진은 FDA에 적극 소명해 지난 2020년 4월 임상보류 해제 통보를 받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했다. 이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 미국 내 임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세계적 암연구센터인 미국 텍사스대학교 MD앤더슨암센터 교수 출신 김선진 박사를 최고과학책임자(CMO)로 영입하는 등 TG-C 성공에 매진했고 이번에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미국 임상 3상은 국내기업 중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임상 3상 시험에 참여를 희망한 환자는 총 6800여명에 달했고 코오롱티슈진은 그 중 1020명의 환자를 선정했다. 미국 내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국내기업은 코



코오롱티슈진 연구원이 미국 임상 3상 투약에 사용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TG-C’의 임상 시료를 보여주고 있다

오롱티슈진이 처음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으로 투약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추적관찰을 진행하고 이후 추적관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동안 FDA 품목허가를 위한 준비를 병행해 TG-C의 FDA 품목허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상업생산을 위한 준비도 이미 착수했으며 세계최대 위탁개발생산(CDMO) 회사인 룬자를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바이오텍 등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골관절염은 현재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질환으로 아직 FDA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없다.

미국 컨설팅회사 ‘사이먼-쿠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골관절염 환자는

약 3800만명. 무류 골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약 2000만명으로 추정돼 근본적인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노문중 코오롱티슈진 대표는 “이미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미국 임상 2상의 결과가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여 임상 3상의 성공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FDA에 품목허가 신청과 함께 상업생산 및 판매를 위한 잠재 파트너들과 협의도 하나씩 시작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코오롱티슈진을 신뢰하고 기다려준 고객과 주주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의미있는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세은 총남대 교수, 정성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홍근 의원, 오세희 의원(왼쪽부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부 소상공인대책 기대이하, 보완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 긴급토론회
“늦어도 한참 늦었다...야당 공약 축소판에 불과 부담 완화 하겠다면서 소비 유인책은 없어”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할 가운데,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에 키워드로 각종 금융지원 및 부담완화책이 마련됐지만, 해당 내용이 현장의 어려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론은 한참 전부터 요구됐은 사안임에도 정부 대책이 상당히 늦게 나온 데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의 축소판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다.

정성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최소 1년 전 긴급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는데 이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안을 살펴보면 이미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의 축소판”이라며 “진실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원 수준도 민주당 공약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안에 부담완화책은 있지만 정작 소비를 유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다”면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소비

지원금 등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정은에 중소벤처연구원도 “지역화폐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일 시행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전기요금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계 현장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를 월매출로 환산하면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재료비와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을 빼면 얼마가 남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영세자영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 위기”라며 “매출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ujung@ekn.kr

티슈처럼 1장씩 뜯어먹는 ‘티슈 브레드’, 켈리 입점 뒤 완판 행진

한남동 ‘더 트러플베이커리’ 최고 인기제품...2500개 이틀만에 동나
주문 다음날 아침 배달로 판매 증대에 한몫...4개월째 뜨거운 호응



오픈된 (영입시간 개시 전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것) 티슈 브레드 맛으로 유명한 서울 한남동 ‘더 트러플베이커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석달째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주말마다 한남동 오프라인 매장에서 긴 줄을 서는 수고 끝에 맛볼 수 있는 더 트러플 베이커리의 티슈 브레드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자 ‘빵덕후’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11일마켓컬리에 따르면, 지난 4월 ‘더 트러플베이커리’ 티슈브레드가 단독 입점한 뒤 이틀 만에 상품 초도물량

이 다 소진됐고, 입고 수량을 늘렸음에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개월째 접어들어 요즘도 매주 공급받는 2500개 물량도 하루 이틀만에 다 팔려나간다는 설명이다. 마켓컬리는 현재 1인당 최대 2개 구매로 제한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남동 ‘더 트러플베이커리’는 빵사이·빵들이들에게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하는 빵집’으로 인정받는 맛집이다. 특히, 티슈 브레드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티슈 브레드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제품으로, 하루 단 100개만 판매하는 바람에 매일 이른 아침부터 오프라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티슈 브레드는 겹겹이 쌓인 얇은 빵을 마치 티슈처럼 한 장씩 뜯어먹거나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포크로 돌돌 말



아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더해져 소셜미디어(SNS)에서 급부상한 인기 패스트푸드 식품이다.

특히, 더 트러플베이커리의 티슈 브레드는 프랑스산 고메버터를 사용해 겹겹이 고소한 풍미가 배어있어 빵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은 물론 잼·생크림을 얹어 색다른 디저트로 먹기도 좋다.

마켓컬리에선 해당 상품의 구매후 기간 벌써 960여개에 이른다. 켈리물 내 상품 화면에는 ‘퐁퐁도 좋고 한 장씩 떼어 잼이나 크림치즈와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본 것처럼 포크로 낱장을 돌돌 말아 커피와 함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주 품절되어 구매 못하다가 겨우 구매했어요’ 등 긍정 일색의 구매후기가 올라와 있다.

티슈 브레드를 먹는 방법은 간단하다. 냉동상품으로 상온에서 30분간 해동한 뒤 17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3~5분 가량 구우면 매장에서 먹는 그대로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고 켈리는 설명한다.

마켓컬리에서 더 트러플베이커리의 티슈 브레드를 주문하면 샷배배송으로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받아볼 수 있는 점도 인기를 더해주고 있다. 가격은 7900원이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美버번 원액 사용 ‘리얼 하이볼’ 나온다

어메이징브루잉, 신제품 ‘에반 버번 하이볼’ 출시...신세계L&B와 협업
“에반 윌리엄스 원액 하이볼은 전세계 처음”...“원조 일본 진술 목표”

토종주제맥주 ‘서울숲’·‘성수동’으로 알려진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가 해외 주류 수입유통 전문 신세계L&B와 손잡고 미국 버번 위스키를 사용한 리얼 하이볼 제품을 내놓았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11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버번 위스키 ‘에반 윌리엄스’ 원액을 섞은 즉석음료 하이볼 ‘에반 버번 하이볼’을 오는 1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에반 윌리엄스를 이용한 하이볼 제품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회사는 덧붙여 소개했다.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오크통을 잘게 쪼개 칩을 넣거나, 오크향을 입힌 하이볼이 많다”면서 “자사 신제품

‘에반 버번 하이볼’은 진짜 버번 위스키를 넣어 만든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보일 에반 버번 하이볼은 애플·레몬 2종이다. 60도의 위스키 원액을 희석해 사용한 제품으로, 용량 355ml에 알코올 도수는 5도다.

주요 4대 편의점·3대 대형마트 모두 입점 확정된 상태로 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발주도 마쳤다. 가격대는 편의점 기준 1캔 당 4000원 수준이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에반 윌리엄스 브랜드의 첫 하이볼 제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이볼 붐이 일면서 국내 소비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하이볼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11일 서울 성수동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에서 김태경 대표이사가 신제품 ‘에반 버번 하이볼’을 시음하고 있다.



모델들이 ‘에반 버번 하이볼’을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와 협업상품인 만큼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가 제품 출시·생산·영업

을, 신세계L&B가 브랜드마케팅·상표제휴 등을 분담한다.

김 대표는 “신세계L&B가 에반 윌리엄스 위스키 국내 소싱을 맡아 원주 단가를 맞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올해 에반 버번 하이볼만 300만 캔 판매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워터밤 등 오프라인 행사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 추후 가정용 캔 제품의 유통 시장을 노린 제품까지 라인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지난해 6월 편의점 CU를 통해 업계 처음으로 안동소주를 활용한 전통주 하이볼 ‘안동하이볼’에 이어 올해 들어 한국 전통주 증류소 해지소주와 협업한 하이볼을 잇따라 소개했다.

김태경 대표는 “국내 RTD 시장에서 1위가 목표로 해외 진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며 “장기 비전은 일본시장에 진출해 현지 하이볼 제품과 겨뤄보는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할리스커피, 육가공 자회사 합병...“종합식품사 도약”

KG할리스에프앤비, KG프레스 흡수
닭가슴살·육류샌드위치 개발 협업



KG할리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커피 브랜드 ‘할리스’ 공식 로고.

할리스(HOLLYS)가커피에육가공사업을 합친 종합식품사로 변신을 꾀한다.

커피 브랜드 할리스 운영사인 KG할리스에프앤비는 10일 육가공 전문 증축회사 KG프레스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오는 8월 30일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할리스에프앤비는 온·오프 라인 유통 채널에서 서로 강점을 보완한 만큼 이번 합병에 따른 제휴·노하우를 활용해 통합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의 할리스커피와B2B(기업간 거래)의 KG프레스의 협업을 적극 추진해 할리스그립닭

가슴살 제품, 육류 활용 샌드위치 제품 등을 개발해 양대 시장에서 수익 증대를 노린다는 설명이다.

이중현 KG할리스에프앤비 대표는 “합병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임직원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두 회사 각자가 가진 강점과 노하우를 공유해 브랜딩·생산·유통 등 다방면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하니 기자

“K-건설은 총체적 난국...다 바뀌야 산다”

건설업계가 경기침체, 생산성 감소, 수요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11일 오후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 건설은 3고(금리, 물가, 환율), 3저(생산성, 기술, 수익성), 3불(부정, 불신, 부실) 등 3대 악재로 큰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도 한국과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국토인프라부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산업 혁신의 당위성을 도출했다. 그리고 백악관이 주도적으로 국가 건설목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고, 3저, 3불의 3대 악재 문제는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건설 혁신의 개념은 미국과 같아도 혁신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닌 산업의 협·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기업의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건설 생산성 향상과 건설사업의 효율성에 있어 핵심인 건설기술 혁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실제로 건설 관련 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감소세에 있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산업 위기진단과 대응 세미나
‘3고 3저 3불’ 3대 악재 빠져...산업 전반 혁신적 변화 필요
대통령실 아닌 산업 협단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건설업계가 경기침체, 생산성 감소, 수요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도 낮다”면서 “타 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연구개발 투자 실적은 낮아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및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에 따른 인력의 질적 저하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건설기업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건설기업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건설기업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건설기업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 전략연구실장은 ‘건설외강기업 경영실태와 한계기업 분석을 통한 전문중소건설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건설 외강기업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증가했으나 수익률은 급락영업이익률은 2021년 6.0%에서 2023년 2.5%로 하락했다. 순이익률도 2021년 4.9%에서 2023년 1.1%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대의변수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체의 경영실적은 더

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쇠퇴기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화관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전문건설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 중심 영업전략과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 또는 기술 특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산업의 구조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건설제도 변화관리와 뿌리 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인력 부족 문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오 실장은 “건설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 건설현장의 기능인력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능인력은 시공단계에 국한된다. 기술인력은 건설사업의 모든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건설 기술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청년층 인력유입 저하 및 고령화 △기술인력의 낮은 글로벌 경쟁력 △첨단기술의 활용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 △낮은 임금 수준 대비 많은 근로시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꼽았다.

오 실장은 이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술인재의 육성 및 양성을 위한 총괄적인 제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며 “산·학·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 차원의 (가칭) 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의 아파트 단지

7월 둘째주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전주 대비 0.24% ↑ 상승폭 5년10개월만 최대...“매수심리 호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정치권·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상승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올랐다. 지난주 0.2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2018년 9월 셋째 주 0.26%가 올랐던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상승 폭이 컸다. 또 지방도 지난주 0.04% 하락했다가 이번주 0.03%로 하락 폭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주 0.04% 상승해 지난주 상승폭 0.03%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16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조금씩 오름폭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승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인근 단지도 확대되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구별로 보면 성동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강세를 보였다. 금호·옥수동의 대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0.52%)가 전주에 이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송파구(0.41%), 서초구(0.40%), 용산구(0.36%), 서대문구(0.35%), 마포구(0.35%), 강동구(0.32%), 은평구(0.30%), 강남구(0.28%)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인천(0.05%→0.06%)과 경기 지역(0.05%→0.06%)의 상승 폭도 다소 커졌다. 인천에서는 중구(0.13%)와 남동

구(0.12%)의 오름폭이 컸고,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0.49%), 성남 분당구(0.31%)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충남(0.03%), 전북(0.03%), 강원(0.02%) 등은 상승했지만, 세종(-0.14%), 대구(-0.11%), 경북(-0.06%), 대전(-0.05%), 부산(-0.05%), 광주(-0.04%) 등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수도권은 시세가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5% 올랐다. 서울(0.20%→0.20%)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수도권(0.12%→0.13%)은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전셋값은 60주 연속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수요 등의 영향으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매물이 소진됨에 따라 인근 단지에서도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 보면 영등포구(0.36%), 은평구(0.34%), 노원구(0.30%)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 성동구(0.27%), 양천구(0.25%), 서대문구(0.23%), 용산구(0.22%), 강북구(0.22%), 서초구(0.21%) 등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경기지역(0.09%→0.10%)에서는 부천 원미구(0.34%)와 김포(0.29%), 수원 팔달구(0.28%), 시흥(0.23%), 고양 덕양구(0.2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강원(0.06%), 전북(0.04%), 울산(0.02%) 등은 상승했고, 대구(-0.08%), 경북(-0.07%), 대전(-0.06%), 경남(-0.05%), 세종(-0.01%) 등은 떨어졌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광화문 국기 게양대 설치 ‘사실상 철회’

오세훈 시장 “모든 가능성 열고 시민 의견 수렴...상징공간은 필요”

논란을 빚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 100m가 넘는 초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시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장군, 세종대왕 등 상징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며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된 6·25전쟁 외에도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을 기점으로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상징 조형물의 형태, 높이, 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 조형물 조형물 조감도

어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의 규모부터 디자인에 이르는 전반적 구상에 아이디어를 더해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현주 기자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독보적 장기전망서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 저자가 미래 주택과 주거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답한다!

1단계: 인구 절벽과 부동산 절벽 집값은 앞으로 올라갈까? 떨어질까?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에 단서를 제공한다.

2단계: 소유에서 공유로 하루 만에 건축되고 이동하는 집,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삶. 지구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교통 발달로 한 번 사서 평생 소유한다는 집의 개념이 바뀐다.

3단계: 가족과 같은 집 거주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맞춰 스스로를 바꾸는 집이 생활의 파트너가 된다.

4단계: 땅 위를 벗어나는 주거 수백만 명이 함께 사는 건물, 완벽한 자급자족을 이루는 집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주거혁명 2030

주거의 의미가 변화되고 확장되는 미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박경숙, 손환은 지음 | 360쪽 | 15,000원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주거혁명 2030**

中, 다음주 '3중전회'...부동산 대책 주목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임박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어떤 대책이 발표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중전회 후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얼마나 찍어낼지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인민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 완화에 나선 뒤 2008~2014년과 비슷한 약 24조위안(약 4544조원) 규모 돈 찍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미분양 주택 약 70%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이런 모험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데이비드 쿵·창 수 이코노미스트는 "상당한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3가지 시나리오 제시

인민은행, 24조위안 규모 돈 찍어 미분양 주택 70% 해소
13조위안 자금 풀 가능성도 거론...주택 재고 40% 매입
2015~2018년 시행한 '관자촌 재개발' 사업이 유력 방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규모 해결책"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이 유럽 부채 위기 이후인 2009~2012년 유럽 중앙은행과 비슷한 13조위안 규모 자금을 풀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럴 경우 주택 재고의 약 40%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적 완화도 부채 급증과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가속화 등 대가를 치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기관은 짚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꼽은 가장 유력한 방안은 중국이 2015~2018년 시행한 '관자촌 재개발'과 비슷한 프로젝트다.

인민은행이 은행들에 3조6천위안(약 680조원)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를 되풀이하면 미분양 주택 재고 10%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조달된다.

또 중국 인구 1.6%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영 기업들에 3천억위안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미분양 주택 재고 1% 미만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로, 부동산 침체를 되돌리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다.

3중전회는 오는 15~1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역대 행사에서는 개혁·개방 노선과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 등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韓, 2028년 백만장자 164만명...5년간 27% ↑

스위스 투자은행 UBS 자산 보고서

한국의 백만장자 수가 향후 5년간 27%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내놓은 2024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56개국 가운데 52개국에서 오는 2028년 까지 백만 달러(약 13억8140만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 백만달러 이상 자산보유자가 129만5674명으로 집계됐으나 2028년 전망치는 164만3799명으로, 증가율은 2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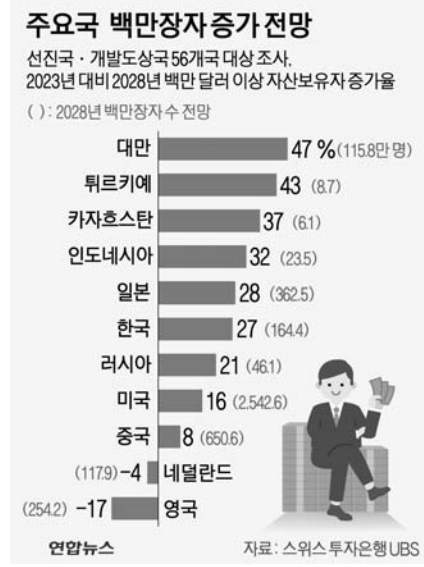
반도체 생산으로 유명한 대만이 증가율 47%로 가장 높았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인 데다 부유한 외국인들의 이주가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다. 그 뒤로 터키(43%), 카자흐스탄(37%), 인도네시아(32%), 일본(28%)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은 각각 16%와 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영국은 예외적으로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에 영국은 현재 백만장자 수가 세계 3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은 백만장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하면서 영국에 자산을 둔 부유한 러시



아인들이 빠져나가는 데다 다른 외국인들도 두바이나 싱가포르 같은 저세율 국가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도노반은 해석했다.

최근 총선에서 패한 보수당 정권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화도 크지는 않지만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덧붙였다.

러시아의 경우 백만장자 수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환율 변동과 최근의 원자재 및 에너지 시장 동향이 러시아 일부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자산은 2022년에 3%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4.2% 반등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4.4%, 미주 지역이 3.5%,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EMEA) 지역이 4.8% 각각 늘었다.

박성준 기자

애플, 올해 아이폰16 출하량 9000만대 목표

AI기능 탑재...전년비 10% 증가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최신 아이폰16의 출하량을 작년보다 1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능이 아이폰 교체 수요를 늘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아이폰16의 출하량을 지난해 동기보다 10% 증가한 900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같은 소식을 협력업체 등에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해 하반기에 아이폰 15 8100만대를 출하했다.

소식통은 애플이 아이폰16에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일부를 추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애플의 목표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경쟁사들이 AI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폰을 잇달아 출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화웨이의 중국산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프로세서를 탑재한 '메이트60 프로'가 현지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면서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부진했으며, 월가에널리스트

들은 올해 하반기 아이폰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아누라그 라나와 앤드루 지라드 애널리스트는 이날 메모에서 애플의 목표 상황에 대해 "지난 2년간 판매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정부 통계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에 따르면 아이폰 매출은 중국에서 올해 들어서도 부진한 출발을 보였으나 지난 4월 이후 가격 할인에 힘입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관건은 애플이 중국의 AI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트의 니콜 팽 선임 부사장은 전망했다.

애플은 지난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고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제휴했으나 중국에서는 챗GPT를 사용할 수 없어 새로운 제휴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각 부처와 국영기업 등에서 아이폰 등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1.88%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19% 상승했다. 박성준 기자

삼성 'AI 폴더블폰' 출시 외신도 관심집중

애플·중국업체 경쟁속 행보 주목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스마트폰을 비롯한 인공지능(AI) 관련 신제품을 내놓은 가운데, 외신들은 애플 및 중국업체들과의 경쟁 격화 속에 입지를 강화하려는 삼성전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Z 폴딩6·Z 플딩6 시리즈 등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중국 경쟁업체들로부터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전된 AI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폰을 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틈새 부문을 개척했지만 중국 업체들이 더 저렴한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널리스트 자료를 보면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2022년 81%에서 지난해 63%로 내려갔다.

다른 업체 인터넷서널데이터코퍼레이션(IDC)에 따르면 1분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9.9%로 반토막났

고 중국업체 화웨이(23.5%)와 아너(14.8%) 등이 추격 중이다.

FT는 또 애플이 올해 안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로서는 스마트폰 매출 1위를 두고 애플과 경쟁 중인 중요한 시기에 신제품을 내놨다고 봤다.

다만 갤럭시 Z 폴딩6이 고가(1천 899.99달러)인 만큼 대량 판매를 통해 실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IDC 자료를 보면 전체 스마트폰 인도량에서 폴더블폰 비중이 2% 미만이며 가격은 평균 1400달러로 3배가량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 만큼 AI 기능 탑재가 매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회의론도 존재한다.

돌턴인베스트먼트의 제임스 린은 "지금까지 공개된 AI 제품은 좋아 보이지만 게임체인저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 CNBC방송은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길어진 상황에서 업체들이 매출 진작을 위해 추가 기능 탑재를 모색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日 닛케이지수 4만2000선 돌파 11일 일본 도쿄 시내의 대형 증시 시황판 앞에서 한 남성이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장중 4만200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

Have a Good Neighbors

당신 곁엔 좋은 이웃이 있나요?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세상 모든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말

Have a Good Neighbors

Have a Good Neighbors
캠페인 자세히 보기 >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본격 시작

10만명 대상 1인 연간 최대 6만원 한도 지역화폐 전환 '리워드' 지급

경기도가 11일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대표 정책이다.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 계획이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 4개 분야이며 △친환경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전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대화용기 이용 △다회용컵 활용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소통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도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2024년은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원 한도 내 지급)이며, 적립 리워드는 다음 달 중순에 지역화폐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적립된 리워드를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가입 시점에서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은 데이터 자동연계를 통해 기후행동 실천 인증을 위한 촬영 및 업로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수도권 교통카드사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인증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또한, 걷기 활동은 하루에 한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적립된다.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동방식이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이며, 사용이 편리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 문화가 경기도 전반에 정착되고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가=송인호 기자

유정복 "시민 체감 행복정책 실현할 것"

(인천시장)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 참석 시민 소통으로 인천 미래 그려 "2년간 미래 기반 튼튼히 다져 글로벌 튼튼 도시 도약에 노력"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오직 시민과 함께,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희망찬 인천의 미래'를 그려냈다.

유 시장은 이날 송도트라이보울 공연장에서 '인천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소통·공감 시민과의 대화인 '제2회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천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의 내일에 대해 소통하고자 마련됐으며 특히 올해는 분야별 인천의 미래 주역들이 참여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의 미래 세대 시민들과 직접 만나 반갑고 행복하다"면서 "지난 2년동안 미래를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글로벌 튼튼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의 '제2회 오직인천 토크콘서트' 참석 모습

유 시장은 이어 "오늘도, 내일에도 시정의 최고 가치는 오직 시민 행복에 있다"며 "미래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법들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과 함께 김주현 바이크 대표, 육은아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장형도 인천대학교 부총학 생활장, 박정환 청년예술단체 대표 등이 참가해 시민패널들이 직접 말하는 인천에서의 삶, 패널들이 겪은 인천에서의 성공담과 도전 속 어려움,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시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주현 바이크 대표는 인천의 양복 기술 장인과 협업하게 된 일화와 전통 수제 양복점을 운영하며 자기만의 창의적 분야를 개척한 노하우 등에 대해, 육은아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와 사회 활동을 병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부위원장, 장형도 인천대학교 부총학 생활장, 박정환 청년예술단체 대표 등이 참가해 시민패널들이 직접 말하는 인천에서의 삶, 패널들이 겪은 인천에서의 성공담과 도전 속 어려움, 그리고

장형도 부총학생활장은 대학 총학 생의 활동 경험과 대학연합 창업캠프

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정환 청년예술단체 대표는 청년세대 예술인의 도전을 위해 필요한 인천시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화예술소통의 일환으로 준비된 인천대학교순수음악창작동아리 포크라인과 남성 팝페라 그룹 라라라리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마지막 특별공연에는 대학축제에 대서로 자리잡은 유다빈 밴드가 인천 미래세대 시민들의 여름 밤을 한층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들었다. 인천=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파주시, GTX중심 버스노선 개편...편의성 ↑

GTX연계노선 5개 신설 시내-마을버스 40대 증차

파주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영역으로 이동시간 단축을 주된 내용으로 버스노선 개편안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GTX-A노선은 파주시 교통 환경 혁신의 시작이다. 이를 중심으로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운영역 접근성 △환승 편의성 △이동시간 단축 등으로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인근 지역에서 GTX 운영역과 연계되는 버스노선안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는 GTX 연계노선 5개를 신설하고, 기존 노선 7개를 조정할 계획이다. 각 노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시내-마을버스 40대를 증차할 예정이다. 증차가 완료되면 △운영역은 67대 △급행역은 23대 △그밖에 지역은 9대 버스가 GTX 운영역까지 다니게 된다.

지역별로 세부 노선 계획을 살펴보면 △운영역은 10분 간격 배차, 15분 내 도착 △급행역은 15분 간격 배차, 30분 내 도착 △그밖에 지역은 40분 간격 배차, 60분 내 도착을 목표로 한다.

김경일 시장은 11일 "접근성이 떨어지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편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번 버스노선 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계 버스의 이용수요를 지속 파악하는 등 GTX 운영역으로 접근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강근주 기자 kjkoo0912@ekn.kr

대전소방본부, 호우 침수 고립 주민 전원 구조

주민 36명 4시간 만에 구해

대전소방본부는 서구 용촌동의 한 마을에서 침수로 고립된 주민 36명을 4시간 만에 전원 구조했다.

1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16분경, 해당 마을에서 지붕 위에 있는 주민의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했다. 이번 구조활동에 총 13대의 차량과 7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소방차량들이 침수된 하상도로를 우회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 전체가 침수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조 보트를 요청했다.

구조소방서 119구조대는 구조 보트 도착 전 육안으로 보이는 구조대상자 7명을 확인하고, 침수지역 인명 검색을 진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침수된 마을을 방문해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강대훈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인명구조 상황을



소방 대원들이 호우 침수로 고립된 마을 주민들을 구조 보트를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

보고받고, 구조대원의 안전과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조보트가 도착하면서 119구조대는 집집마다 추가 구조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급대는 구조된 주민들을 인근 복지관으로 이동시켜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용촌동 마을 이장이 모두가 잠든 시간인 오전 5시경 독이 무너지기 전 신속하게 대피방송을 하고 피난을 유도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박용현 기자 ad0824@ekn.kr

전북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관광휴양 추진...서비스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발맞추고 새로운 관광휴양의 패러다임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정원문화 활성화 계획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7년까지 4900억 원을 투자해 기존 산림복지 인프라 21종 269개소를 503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도의 이같은 계획은 산림 치유·휴양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과 인구구조변화, 산림레포츠 및 소규모 모임, 가족단위 이용자의 증가, 휴양과 치유 등을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변화에 맞춰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는 관련 인프라와 이용 편의, 산림 교육·체험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산림의 효용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2146억 원을 투입해 226개소의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서비스 기반을 보완·조성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4900억원 투입 복지인프라 269→503개소 확대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조성

△출생기와 유아기에 맞춰서는 정서 함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정원, 생활밀착형 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산림복지단지 등에 667억 원을 투자해 34개소를 조성한다. △청소년·청년기의 창의성과 인성발달을 위한 숲길, 산림레포츠, 수목원 등에 237억을 투자해 37개소를 보완·조성한다. △중·장년기 수요가 많은 산림휴양을 위해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에 310억 원을 투자해 24개소를 조성·보완하게 된다. △노년기·회년기는 생활속 안전한 도시숲, 도시바람길 숲 등 830억 원을 투자해 113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보행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해 누구나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에 101억 원을 투자해 18개소를 확충하고 있다.

유아·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숲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교육



전북특별자치도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80명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13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로 주변 가까이 꽃과 나무를 항상 접할 수 있는 생활속 정원에 관심이 많아지고 정원에서 체험과 교육, 치유 등을 경험하는 정원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원 산업 확대를 위한 육성 계획도 마련했다.

정원문화·산업 확산의 거점인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유아숲 등 정원인프라를 확충해 도민들이 어디서든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원 식물·소재 등 유통과 기술개발

등 정원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 역량을 강화하며, 정원의 이용·체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운영 확대, 정원 치유, 생활속 정원, 정원관광, 정원 박물관, 문화행사 등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 전북은 청정하고 빼어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해 에코힐링 1번지로 만들어 일과 삶, 쉬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 정책을 진화시키겠다"라며, "산림복지 서비스와 정원문화 확대를 통해 도민들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이수준 기자 rbs-jb@ekn.kr

안산시, 재난관리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원주시, 원주천 파크골프장 신설사업 첫발

안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분야 최상위 종합평가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국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책임성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재난관리 평가는 6개 분야(△공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가점) 실적에 대해 중앙재난관리평가단 및 민간 전문가가 심사 및 국민참여 심사를 거쳐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을 부여했다.

안산=강근주 기자

원주시가 도심 속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천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이 첫발을 내딛었다.

11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원주천 파크골프장 신설사업'이 원주지방환경청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속도를 내게 됐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태장동 영진아파트 인근 하천부지 2만1000㎡에 파크골프장 18홀, 주차장 80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시는 2023년부터 원주지방환경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 하천둔치 체육시설물을 하천홍수위 높이 이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공사를 선행하고 파크골프장 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다.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인 원주천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시민이 행복한 원주, 건강하게 맘 쉼리는 원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 및 원주천 르네상스·휴양전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주=박예스 기자 ess003@ekn.kr

“고성능 차량 개발에 대한 방향성 제시”

‘굿우드 페스티벌’서 주행 시연 고성능 차량 개발 방향성 공개 동커볼케 현대차 CDO·CCO “고성능 차량 궁극적 지향점 여유·자신감 등 운전의 즐거움” 어떤 조건서도 뛰어난 주행감 등 ‘제네시스 마그마’ 3대 속성 제시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콘셉트’ 차량 이미지.

제네시스가 고성능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11일 (이하 현지시간) 영국 웨스트식스주에서 열린 세계적인 자동차 축제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GV60 마그마 콘셉트’ 등 고성능 주행 능력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또 ‘제네시스 마그마’의 3대 속성을 제시하며 고성능 차량 개발 방향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1993년부터 시작된 굿우드 페스티벌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카부터 고성능 스포츠카, 럭셔리카 등 다양한 차량들을 전시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국 최대의 자동차 축제다. 차량이 실제 주행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어 ‘움직이는 모터쇼’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특히 주행하기 까다로운 코너와 가파른 언덕으로 구성된 1.86km 길이 ‘힐클라임(Hillclimb)’ 코스 주행이 행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굿우드 페스티벌에 참가해왔다. ‘G70 슈팅 브레이크’ 등 다양한 차종으로 힐클라임 코스를 완주했다.

제네시스는 이날 ‘GV60 마그마 콘셉트’,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 ‘GV80 쿠퍼 콘셉트’, ‘G70 트렉스 노르드 슬레이프’의 총 4개 차량으로 힐클라임 코스를 완주했다. 이 중 ‘GV60 마그마 콘셉트’와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의 주행 시연은 전 세계 최초다.

일반적으로 양산 차량이 콘셉트 차량 대비 향상된 주행 성능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콘셉트 차량들의 힐클라임 완주는 향후 양산될 제네시스의 고성능 차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 그룹 글로벌 디자인본부 최고 디자인 책임자(CDO) 겸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CCO)

는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팬들이 참석하는 굿우드 페스티벌은 제네시스 마그마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선보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라며 “‘GV60 마그마 콘셉트’ 등의 주행 시연으로 마그마가 가진 역동적인 캐릭터와 힘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GV60 마그마 콘셉트’ 등은 14일까지 총 13차례 힐클라임 코스를 완주한다.

제네시스는 이번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고성능 차량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 3월 뉴욕에서 ‘GV60 마그마 콘셉트’를 공개하며 고성능 영역으로의 진출을 선언한 데 이어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제네시스는 고성능 차량 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여유’와 ‘자신감’에서 오는 ‘운전의 즐거움’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운전의 즐거움을 구현하기 위한 ‘제네시스 마그

마’의 3대 속성을 공개했다.

제네시스 마그마의 3대 속성은 △충분한 파워와 정교한 차량 역학 제어로 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차량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행 감각(Captivating Control) △넓고 낮은 차체로 역동성의 본질을 보여주고 제네시스만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디자인(Unspoken Dominance) △운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및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Sharpened Immersion)이다.

마그마 차량은 가·감속 및 코너링 성능 등 운전자가 예측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제네시스는 광폭 타이어 기본 적용은 물론, 전용 사시 및 드라이브 샵트 등 다양한 부품을 마그마 특화 사양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마그마 차량을 통해 동급 차종들 중 최고 수준의 출력 및 차량 역학 제어 성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제네시스는 올해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경계의 미학’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기반으로 실내와 실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한국적 정서를 담아낸 2층 규모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 부스에는 ‘GV60 마그마 콘셉트’를 비롯해 △G80 마그마 스페셜 △X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GV60 등 다양한 차량이 전시된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수여되는 GV70 전동화 모델.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개막

세계 랭킹 2위 로리 맥길로이 등 PGA·KPGA 소속 선수 등 156명 경쟁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에 위치한 르네상스 클럽에서 11~14일 (이하 현지시간) 열린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D P월드투어,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소속 선수 총 156명이 참가한다.

‘2023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자인 로리 맥길로이(세계랭킹 2위)를 비롯해 젠더 쇼플리(3위), 루드비그 오베리(4위), 윈덤 클라크(5위), 빅토르 호블란(6위)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주형(16위) 선수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2023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박상현, 2023년 제네시스 포인트 대상 함정우, 2023년 제네시스 포인트 2위를 기록한 이정환 선수는 제네시스 초청 선수로 함께한다.

이번 대회는 총상금 900만 달러, 랭킹 포인트 8000점 규모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140만 달러와 함께 GV70 전동화 모델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이와 함께

17번 홀에서 첫 번째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 및 캐디에게 각각 GV70 전동화 모델과 GV60가 부상으로 제공된다.

제네시스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제네시스 차량 163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회가 열리는 르네상스 클럽 곳곳에 GV60를 비롯한 제네시스 차량 12대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모바일 라운지’에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GV80를 전시해 제네시스만의 역동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스웨덴에 반응해 다양하게 움직이는 키네틱 라이팅 구조물 전시 선수 응원 포스트카드 작성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송민규 제네시스사업본부장(부사장)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상의 코스 환경과 세심한 케어를 지원하고 있다”며 “대회를 찾아주시는 관람객 수도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홀인원 이벤트 도입 등을 통해 팬 경험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여현우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신제품 18일까지 사전 판매 실시

삼성전자는 역대급 중고보상 프로그램과 함께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사전 판매를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공식 출시는 24일이다.



갤럭시 Z 폴드6는 실버 세도우, 핑크, 네이비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256GB 모델이 222만9700원, 512GB 모델이 238만8100원, 1TB 모델이 270만4900원이다.

갤럭시 Z 플립6는 블루, 실버 세도우, 옐로우, 민트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256GB 모델이 148만5000원, 512GB 모델이 164만3400원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색상의 자급제 모델도 출시한다. 갤럭시 Z 폴드6는 크래프트 블랙과 화이트 색상, 갤럭시 Z 플립6는 크래프트 블랙, 화이트, 피치 색상이 단독으로 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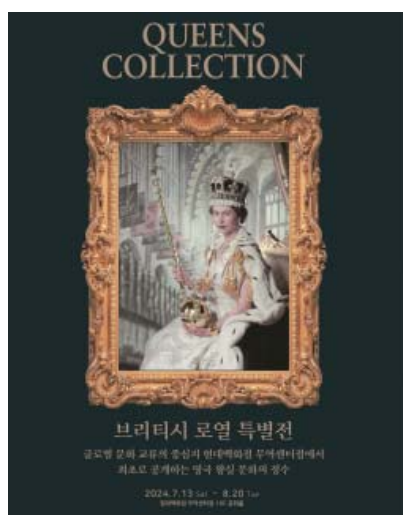
갤럭시 Z 폴드6·Z 플립6의 사전 판매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오픈마켓을 비롯해 오픈마켓 등에서 시행된다. 12일 0시에는 삼성닷컴에서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구매 시 갤럭시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에 더해 모델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갤럭시 바퀴보상’ 프로그램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갤럭시 Z 폴드5 512GB 모델은 반납 시 중고 매입 시세에 추가 보상금 20만 원을 더해 최대 110만 원의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현대백 “英 다이애나비 웨딩베일 첫 공개”

英 로열패밀리 소장품 특별 전시 국내 첫 공개 퀸즈 컬렉션에 엘리자베스 2세·다이애나비 등 고인들 컬렉션으로 구성 ‘세기의 결혼’에 선보인 웨딩베일·로즈드레스 등 눈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퀸즈컬렉션 전시 포스터

현대백화점이 영국 로열 패밀리(왕족) 소장품과 왕실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연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이랜드뮤지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영국왕실 특별전 ‘퀸즈 컬렉션(QUEENS COLLECTION)’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퀸즈 컬렉션의 전시품은 영국 로열 패밀리와 관련된 소장품 80여 점으로, 지난해 서거한 엘리

자베스 2세를 비롯한 마거릿 공주,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다이애나 왕세자비 등 고인들 컬렉션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가 신혼시절이었던 1948년 무도회에서 입은 의상으로 유명한 드레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세기의 결혼식’ 당시 착용한 웨딩 베일과 1992년 한국방문 때 입었던 버건디 로즈 드레스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시는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의상·액세서리뿐만 아니라 군주의 위엄을 상징하는 표현이 담긴 1564년 엘리자베스 1세의 결제 문서, 1936년 에드워드 8세의 퇴위연설 녹음 앨범 등 당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도 전시돼 영국왕실의 이야기와 통치 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현대백화점은 기대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무역센터점은 인근에도 도심공향터미널·특급호텔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 덕에 글로벌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민 기자 pr0208@ekn.kr

롯데리아,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 교육 확대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오는 15일부터 고령층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마실’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서울시가 주관하는 ‘디지털 배움터’ 교육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롯데리아는 올해 고령층 1000명을 목표로 키오스크 이용 방법 관련한 이론 교육과 롯데리아 현장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마실 프로그램을 통해 총 8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오는 15일부터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운영하는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마실’ 관련 포스터. 사진=롯데GRS

이를 위해 롯데리아 매장 내 홍보물과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활용한 타겟 홍보를 진행한다. 신청자 3인 이상일 경우 교육 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개인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롯데리아는 디지털 마실 교육과 함께 키오스크 고도화 작업에 지속하며 올해 하반기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보다 고도화한 디지털 약자 친화형 키오스크를 선보인다. 롯데GRS 관계자는 “지난해 돋보이기, 고대배, 음성안내 등 1차 고도화 작업에 이어 현재 2차 키오스크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매장 이용 고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o@ekn.kr

카카오엔터,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엔비디아 X 카카오엔터 개발자 캠프’…고성능 클라우드 시장 경쟁력 ↑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적극 활용하는 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날 삼성동에 위치한 카카오강남오피스에서 ‘엔비디아 X 카카오클라우드 웨딩데이 인공지능(AI) 개발자부트 캠프’를 열었다. 본 행사는 카카오클라우드의 엔비디아 GPU 인스턴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AI와 클라우드 기술세미나’ 및 ‘카카오클라우드와 엔비디아 AI를 활용한 AI인퍼런스 부트 캠프’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행사인 ‘AI와 클라우드 기술세미나’에서는 엔비디아의 AI 솔루션 소개 및 카카오클라우드의 기술과 서비스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정중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략사업팀장이 1부 행사에서 카카오클라우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부 행사는 카카오클라우드 기반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거대언어 모델 라마 3(LLaMa3)의 인퍼런스 최적화 및 배포 관련 최신 기술을 실습했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클라우드와 엔비디아간 첫 공동 행사였다. 하지만 양사는 이미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클라우드 는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하는데, 엔비디아 GPU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SK실더스, 파라다이스 보안체계 강화

국내 최고 수준 안전한 서비스 제공



SK실더스가 파라다이스그룹의 정보 보안 체계 통합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지난 50여 년간 카지노, 호텔, 스파 등 관광산업을 이끌어온 복합리조트 기업이다. SK실더스와 등 독보적인 역량을 통해 보다 강화된 IT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고도화해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포부다.

SK실더스는 통신, 제조,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보안 사업을 전개 중이며 특히 호텔, 카지노, 리조트

등 대규모 사업장 보안 체계 구축 경험이 풍부하다. 20여 년간 축적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데이터와 분석 역량, 현장 컨설팅 경험, 전문 인력 보유 등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파라다이스그룹의 정보보안 체계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SK실더스는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사이버보안체계를 기반으로 파라다이스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김윤호 기자

신규 재생E 설치 감소...RE100 기업 해외로 나갈 수밖에

EE칼럼
Energy&Environment

신동한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재생에너지의 보급이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문제라는 것은 이제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아직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한국 재생에너지 없어도 너무 없다”...아마존 8조 투자 흔들, ‘미국도 탄소국경조정세? 공화당 의원까지 나서’, ‘거세지는 RE100 요구...국내 차 부품사 계약 취소 잇달아’ 등의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정부가 수출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2021년에 한전이 전기를 판매할 때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제’를 도입한 데 이어 RE100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시장을 개설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전이 중개 판매하는 ‘제3자 PPA’, 기업이 전력거래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제’도 잇달아 시행하였다. 현재 국내 RE100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제와 REC 구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구매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기업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RE100 시장에서

REC의 가격이 8만원대로 올라서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가 REC’를 풀어 7만원대로 끌어내렸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대중처방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기업의 전력 수요에 비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36개 RE100 기업 기업의 전력수요만 해도 연간 약 60TWh로 전체 전력생산량의 10%를 넘는다. 반면 2022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49TWh 수준이다. 미기입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부호회사들까지 하면 수요량은 더 늘어난다. 게다가 현재 6개 품목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의 필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매년 6GW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소박한 희망마저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통계를 보면 2021년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가 4GW 새로 설치된 것을 최고치로 2021년 3GW, 2022년 2.9GW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가 지난 지금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발전설비는 1GW를 갓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올 연말 설치량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에너지 및 환경정책 총괄 케 헤이그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재생에너

지 파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작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금도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AWS는 지난해 말 SKE&S와 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 설치하는 데이터 센터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8조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는 재생에너지 공급 여부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이제 부족한 재생에너지는 해외투자자를 떠나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에 생산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태양광에 대한 출력제어, 소규모 접속권 폐지, 경쟁입찰 도입 등 정부의 태양광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력도 거둬고 나섰다. 올들어 전국적으로 계통 부족을 내세운 발전사업 허가 후보가 급속하게 늘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수도권 이동을 내세워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려 한다. 지역에서 배전망에 연결되는 소규모 태양광의 확충은 대규모 송전의 필요를 줄여준다는 것이 앞선 나라들의 경험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전은 이 참에 작지만 숫자만 많아 다루기 힘든 소규모 태양광의 진입을 막고 있는 셈이다.

해외투자의 유인, 한국 기업의 생산설비 국내 설치에 필수조건이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이제 정부와 한전은 태양광 옥죄기에서 벗어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진입 장벽을 앞장서 허물 때가 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 축소를 위한 대책

이슈&인사이트
Issue&Insight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여, 정책금융 지원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제 자영업 대출 연체를 줄이고,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차례이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한대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차주에 대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기회 제공이 효과적이다. 이미 가계 신용 및 주택금융 대출의 경우 대한대출 프로그램 시행으로 소기의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전용 기업 대출이 여태까지 시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둘째, 자영업 대출의 연체 예방 및 축소를 위한 규제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억제제를 위한 차주별 DSR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규제지표는 존재하지 않아, 효과적인 대출 수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 대출 규제지표로서 LTI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 경제연구기관인 KDI는 코로나 시기에 정책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오히려 신용등급이 하락해 폐업으로 이어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정책금융 재원이 자영업자의 갹생 및 사업 활성화 대신 폐업지원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지원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LTI가 효과적 선별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감소는 자영업 대출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를 억제하지 못한 느슨한 통화정책이 이에 한몫하고 있으며, 폭리 수준의 배달업 중개수수료도 향후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 배달업 중개수수료율 규제,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대한대출 플랫폼 서비스 시행, LTI 규제 비율 도입과 정부의 자영업 대출에 대한 선별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에너지경제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에너지3법 조속 통과 기대

기자의 눈

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jjs@ekn.kr



가나,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규 원전의 정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에너지 정책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풍력발전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사업 인허가 불허가 이어지면서 이미 해외 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것 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해 통과가 확실 시 됐다. 대통령실은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안 통과 의지도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경쟁의 요소가 아님에도 여야는 특별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 법안 통과를 외면했다. 여야 모두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원이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구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하나같이 시급 민생법안이다. 가장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우) 04516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5층	발행인 송용희 사장 임정효 주필 신연수 편집국장 송영택 인쇄인 정희택
대표전화 02-850-0114 대표팩스 02-867-0453 광고문의 02-6749-3124 구독문의 02-6749-3125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경제부 02-6749-3118 · 산업부 02-6749-3114 · 금융부 02-6749-3172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 국제뉴스부 02-6749-3173 · 전국부 02-6749-3119 · 종합편집부 02-6749-312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 1989년 5월 26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DMi 2024
AI & 미디어 인사이트
2024

6인의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와 함께하는 북 컨퍼런스!
생생한 강연을 책으로 만나다!

2024년, AI를 지배할 것인가, AI에 지배당할 것인가?

AI 시대의 생존 전략부터 비즈니스 마케팅의 AI 활용 방향까지 담았다

2024년은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 보다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인터페이스'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The Last Mile(이용자 사용 편의성)이 극복될 것이다! - 강정수 (더코어 CSO)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당신의 인구전략은 무엇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New Normal)인가? 변하지 않은 일상(Post Normal)인가? - 황성연 (닐슨미디어코리아 부장)

2024년은 유튜브가 AI를 장착하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본격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AI'와 '숏폼', '커머스'의 트렌드를 앞세운 유튜브는 우리 생활의 기반 플랫폼으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

2024년은 AI와 방송이 만나는 동시에 스트리밍의 화려한 빈곤이 시작될 것이다. 세상은 스트리밍으로 바뀌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어느 스트리밍도 안심할 수 없다! - 한정훈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

체험에 그치는 콘텐츠는 스쳐 지나가지만, 경험이 되는 콘텐츠는 IP가 된다! 사람들은 콘텐츠를 통해 어떤 경험을 쌓아가고 있을까? 이제는 서사 중심의 연계를 넘어 비서사적 경험까지 모두 아우르는 IP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리니지라이프 영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 모바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2024년에 <데이트 더 다이비>와 <P의 거짓>에 이어 스팀과 콘솔 시장에 한국 게임의 경쟁력을 입증할 후속작이 나올 것인가? - 임상훈 (디스이즈게임 대표)

김경달 강정수 황성연 한정훈 이성민 임상훈 저 | 값 19,000원 | 이은복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2안길 16 삼성빌딩 8층 | 전화 02-322-1412 | dmicon.com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는 일

신한이 모든 순간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신한금융그룹은 사회공헌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동부터 청년, 성인, 시니어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행복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